

## “美, 기독교 약해지지 않았다”

교회 출석률 낮아졌어도 기독교인 수는 감소되지 않아  
가정교회 출석률과 지역교회밖 영적활동은 더욱 늘어나

최근 수십년 간 미국 교계 동향을 살펴보면, 전체적인 교회 출석률은 점차 줄어든 반면, 교회 밖의 영적인 활동인 소규모의 제자 양육 또는 공동체 모임 출석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흔히 미국 교회의 교세가 줄어 기독교까지 쇠퇴했다는 선입견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실이다.

켈리 새터이 쓴 ‘미국교회 출석률에 관한 7가지 사실’과 그 요약에 따르면, 1990년대에는 20.4%의 미국인들이 지역교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었으나 2000년 들어 그 비율은 18.7%, 2004년에는 17.7%로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에서 2004년 사이 교

회의 출석자 수는 꽤 비슷하게 유지됐는데, 그 사이 미국 인구는 4,800만 명 증가했다. 성도 수는 동일하다 할지라도, 전체 인구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교회 유형에 따른 출석률 추이를 보아도 미국의 복음주의, 자유주의, 가톨릭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에서 2004년 사이 가톨릭 교회는 11%, 자유주의 교회는 10%, 복음주의 교회는 1%씩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설문조사 기관인 바나그룹에 따르면, 가정교회를 포함해 1996년 37%였던 미국인들의 교회 출석률이 천천히 증가해 2006년 47%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지역교회에서의 성경

읽기와 같은 핵심적인 종교행위와 더불어 가정교회 출석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남침례회 에드 스테처(Ed Stetzer) 선교연구센터장은 “지역교회 밖에서 영적인 활동이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제자 양육과 공동체 모임의 장소로 지역교회가 아닌 다른 곳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베이런대학교 사회과학 교수 이자 종교연구소 설립자인 바이런 존슨 박사 연구팀도 작년 5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주류 개신교단에 출석하는 교인들이 1960년대에서 2000년까지 약 49% 감소한 반면, 복음주의를 비롯한 다른 종교 단체들은 오히려 빠른 성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양한 조사 결과를 인용해 “특정한 종교나 교단에 속해 있지 않은 개인들이 증가하고,

많은 주류 교단의 교인 수가 줄어드는 것 자체가 ‘종교가 죽었거나 무신론자들이 증하고 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존슨 교수는 “‘진리의 승리’(The Triumph of Truth) 저자인 베일러대학교 로드니 스타크 사회과학 교수는 갤럽의 설문조사를 인용해 기독교의 인구가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체적인 교회 출석률은 감소 중이지만 성도 50명 미만의 소형교회와 2천명 이상의 대형교회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94년부터 2004년까지 10년 간 소형교회는 16.4%, 대형교회는 21.5% 증가했으며 이는 12.2%인 인구증가율보다 높았다.

[관련기사 10면에 계속]



침묵의 시간이 왜 필요한가. 미혹과 혼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다.

침묵은 나를 되돌아보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깨닫게 해준다.

그리고 고난을 극복할 용기와 자신을 이길 힘을 가져다 준다.

예수님께서 홀로 계시는 시간이 많으셨다.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내가 옳다, 내가 여기 있노라”라고 외치는 대신 가급적 군중들로부터 멀리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셨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잠자코 하나님 때를 기다리셨다.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잠자코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갖자.

## “부목사는 담임목사처럼…담임목사 되면 부목사처럼”

제2회 미주 목회자 사역 세미나…‘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제로 열려



US채플린연구소와 블루 미니스트리(Bible Love Unity Edifying Ministry), ECA한인연합회 등이 제2회 미주 목회자 사역 세미나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란 주제 아래 20일 사랑의빛선교교회(담임 윤대혁 목사)에서 개최했다.

“오늘 만들어진 부목사 그릇으로 까지”에서 “부목사는 소중한 사역이다”란 주제로 강의한 김기섭 목사는 자신의 부목사 경험을 통해 느끼고 배운 바를 진솔하게 전

했다. 김 목사는 호주에서 전도사 10년,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부목사 10년을 거쳐 현재 LA사랑의교회를 개척해 10년째 담임으로 시무하고 있다.

그는 자신에 대해 “안 해 본 게 없는 부목사 출신”이라고 소개하며 “부목사 때 만들어진 그릇이 담임목사가 되어서도 그대로 가게 돼 있다. 지금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자기 그릇의 100%를 넘어 120%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큰 그릇을 빚어 능력과 은사를 담아주신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가장 먼저 ‘배우려는 자세’를 주문했다. 그는 솔로몬이 왕이 된 후 하나님께 구한 것도 ‘듣는 마음’(왕상3:9) 즉, 배우려는 자세였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9면에 계속]

## “연방정부, 성전환자에게 화장실 개방”

소셜시큐리티 사무실 등…연방건물 9천 2백여 곳

미연방교육부와 법무부가 공립학교 학생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전국 학교에 지침을 내린 이후, 이런 조치가 총무청에서도 실시된다.

총무청은 지난 목요일 “연방기관과 그 산하 단체는 화장실 및 관련 공간을 개인들이 성 정체성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이 지침에 따르면, 연방정부 관련 시설이나 건물 내에서 트랜스젠더에게 개인용 화장실을 사용하게 강요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 지침은 성전환 수술이나 호르몬 투여를 하고 있는, 즉 외관상 변화를 겪은 트랜스젠더뿐 아니라

모든 트랜스젠더에게 적용된다. 따라서 생물학적인 남성이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다면, 그는 외형이 남성일지라도 여성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허가해 주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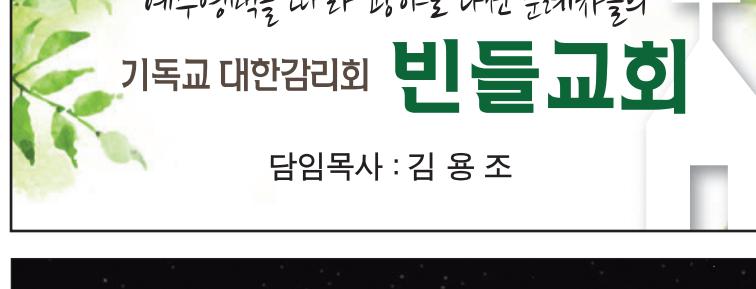
총무청의 이번 지침은 소셜시큐리티 사무실과 법원 등 9,200여 시설에서 적용된다.

이 시설 내에는 약 1백만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원은 물론 이 시설을 방문하는 모든 시민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앞서 연방교육부와 법무부가 전국 공립교육 기관에 이런 지침을 내릴 때 그들은 반차별 교육법을 그 근거로 내세웠다.

김준형 기자

## 영성으로가는 성지순례(3) [13면 참조]



■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  
관상기도회(금) 오후 8:00  
32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818)518-0033

아이비 유학  
Shelby Kwon  
Director  
3·7·21 재능캠프  
얼바인 홈스테이  
정착 써비스  
Shelby Kwon  
Director  
3·7·21 재능캠프  
얼바인 홈스테이  
정착 써비스  
LA 500 Shatto Place, Suite 200  
Torrance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Irvine 17702 Cowan, Irvine, CA 92614  
USA Tel: (949)329-8222  
Email: shelby.moon65@gmail.com  
www.MyIvydream.com

HAS SCIENCE  
BURIED GOD?  
과학이 하나님을 매장했는가?

FRI, SEP 09  
7:00 PM

New Covenant Academy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213-487-5437 | E-mail: events@nca.org

Guest Speaker: Dr. Hugh Ross Organization: Reasons to Believe (reasons.org) Sponsored by NEW COVENANT ACADEMY



10월 23일 개최되는 다민족 연합기도회를 홍보하는 설명회가 18일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렸다.

## 회개와 부흥 “이 땅을 고치소서”

지난해 11월 다민족 연합기도회를 애나하임 컨벤션 센터에서 열었던 한인교계가 올해는 오는 10월 23일(주일) 오후 5시 같은 장소에서 기도회를 개최한다.

그동안 한인교계는 2004년 벨리 그레하 전도대회를 시작으로, 2011년 로즈볼 다민족 기도회, 2014년 버라이즌 애워리장 다민족 기도회, 또 올해 초 아주사 나우 기도회까지 미국교계의 초청을 받아 한 민족으로서 다민족 교계 행사에 참여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오렌지카운티 한인들이 중심이 되어 타민족을 초청하는 형식의 대규모 다민족 연합기도회를 최초로 열었고 올해는 두 번째다.

주최 측은 “이 땅을 고치소서(Heal Our Land)”란 주제로 미국의 회개와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데 특히 11월 선거를 위해 기도하고자 행사 일정을 다소 앞당겼다.

18일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미주한인기독교총연

합회 회장을 지낸 한기홍, 송정명 목사, JAMA 대표 강순영 목사를 비롯해 OC기독교교회협의회, 남가주중부교회협의회, 남가주한인목사회, OC기독교평신도연합회, OC한인여성목사회 등 교계 단체의 대표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청년 단체인 순무브먼트의 조성주 간사, 파이어 크루세이드의 정기정 목사, HYM의 더글라스 김 집사, 미스바찰야기교회의 박형준 목사 등도 참석했다. 또 지난해 한

인교계가 처음으로 주최했던 다민족 기도회에 동참했던 흑인, 라티노, 중동계 목회자와 언론 관계자들도 설명회에 참석해 비상한 관심을 드러냈다.

지난 해에는 이 기도회에 3,5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강순영 목사는 “올해 행사에는 6천 명이 참석하기 기도하고 있으며 특히 다민족들과 함께 우리 한인 2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송

정명 목사는 최근 캘리포니아의 기독교 대학에 관한 법 SB1146을 들어 “한인들이 미국을 위해 기도해야 함”을 역설했고 한기홍 목사는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 나라를 새롭게 할 강력한 대부흥이 일어나야 한다”고 했다. 주최 측은 기도회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한인교회는 물론 다민족들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홍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준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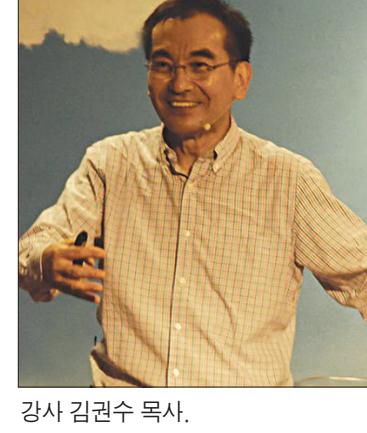
## 한인교계 중심 다민족 기도회…10월 23일(주일) 오후 5시 애나하임 컨벤션 센터에서

### “성경을 파노라마처럼 이해할 수 있어요”

김권수 목사 인도 성경통독 세미나…LA비전교회와 ANC온누리교회에서 열려



LA비전교회에서 열린 성경통독 세미나 모습. ©전재룡



강사 김권수 목사.



크리스천 스쿨인 글로벌선진학교 음성캠퍼스 교감 우현석 목사가 학교소개를 하고 있다.

말씀을 바로 알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들을 위해 성경통독 세미나가 열렸다.

다름 아닌 김권수 목사(ANC온누리교회)가 인도하는 성경통독 세미나가 개최된 것이다.

13일에는 LA비전교회(담임 김대준 목사)에서 열리고 이어 20일에는 ANC온누리교회에서 각각 열렸다.

이 세미나의 개최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배우며 익히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두 차례 열린 세미나에서는 각각 5시간에 걸쳐 성경 전체를 읽고 그 흐름을 파악하여 성경을 파노라마처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 세미나는 김 목사의 인도에

따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줬다.

또한 각각의 개요와 시대적 배경, 성경적 배경, 그리고 거기에 섞인 일화 등 5시간에 걸친 강의를 통해 성경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됐다.

이영인 기자

지난 20일 오후 LA한인타운에 위치한 말씀새로운교회(담임 김회장 목사)에서 글로벌선진학교 음성캠퍼스 교감인 우현석 목사가 학교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글로벌선진학교는 음성캠퍼스를 시작으로 문경캠퍼스도 성공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서도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학교의 총 재적 학생은 1,000명이 넘는다.

우 교감은 학교 소개를 통해 “오늘날과 같은 번영 속에서 청소년들은 방탕한 윤리가 지배하는 시대를 피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며 “글로벌선진학교 같은 학교 적이고 윤리적이고 신앙적인 학교들이 많이 세워져 청소년들에게 신앙에 바탕을 둔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트리니티대학교 총장인 김회장 박사는 우수한 치과대학을 공부한 자녀를 통하여 개발한 미주 한인단체 장학금 정보와 신청 노하우를 200여 점의 자료들과 함께 공개 세미나를 인도했다.

그는 이 세미나를 통해 “지금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할 때다. 기관이나 교회들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봉사와 리더십 인증자료를 구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며 “청소년들을 우수한 인력으로 키우는데는 장학금이 아주 큰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문의: 213-219-0649  
(김회장 목사)

\*이메일:  
hoichangkim@hanmail.net

### 나성제일교회 <위로와 치유의 부흥집회>

나성제일교회(담임 김문수 목사)에서는 이민생활에 지친 지역교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위로와 치유의 부흥집회>를 개최한다.

강사는 심호섭 목사이다. 심 목사는 인디아나 주 미시아나한인

교회와 조지아 주 아틀란타성약 교회를 담임했으며 현재는 알타이션교회 미국대표로 있다.

\*일시: 9월 9일(금) 오후 7시 30분

9월 10일(토) 오전 6시,

오후 7시 30분

9월 11일(주일) 오전 8시,

오전 11시

\*장소: 나성제일교회 본당

\*주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문의: 213-388-7101

## 2016년도 실버드림대학 가을학기 개강

너는 선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 19:32)

### 수강 신청 안내

- 등록기간 : 8월 21~9월 1일 (선착순 100명)
- 수 강 료 : 한 학기 \$50.00 (점심식사 포함)
- 가을학기 기간 : 9월 1일(목) ~ 12월 8일(목)

(매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30분)

장 소 : 나성순복음교회 교육관

과 목

- 1교시 : 한국전통무용, 생활건강크리닉, 뜨개질, 영화교실, 생활영어, 스마트폰, 컴퓨터 초급, 바둑
- 2교시 : 컴퓨터 중급, 문예창작반, 성경파노라마(성경 인물편), 기타 교실, 노래 교실, 유화 및 수채화, 건강체조, 바둑

등록문의: 학감 서미수 목사 T(213)820-9796

황원일 전도사 T(213)369-4440

국장 박용숙 권사 T(310)404-7070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실버사역의 교회교육은 하나님의 뜻이며 시대적 사명입니다. 실버드림대학은 애녹회 회원 및 60세 이상의 어르신들로 하여금 자기 정체성을 이해하고, 자기 가치를 발견하며 자기 소명을 따라 하나님과 이웃과 자신을 위해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실버드림대학은 사회와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증언자요, 봉사하며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교육하는 대학입니다.

실버드림대학은 본 교회의 애녹회 회원들 그리고 60세 이상의 어르신들과 더 나아가 한인 사회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성숙한 믿음 생활과 여가 선용을 위해 그리고 건강하고 보람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과목들을 개설하였습니다.

준비된 노년은 아름답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실버드림대학으로 오십시오.



미주복음방송 새 사옥 이전 및 임종희 목사 출판 감사예배가 23일 은혜 가운데 드려졌다.

## “은혜의 25년, 도약의 25년”

### 미주복음방송 새 사옥 이전예배…임종희 목사 출판감사예배 드려

미주복음방송(이하 복음방송)이 신 사옥을 엘에이에서 오렌지 카운티로 이전하며 도약의 2기 사역 시대를 열었다.

23일 오전 복음방송 신사옥 대예배실에서 복음방송 관련자 및 남가주 교계지도자, 후원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전감사예배가 은혜 가운데 드려졌다.

복음방송 이사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 담임)의 인도로 진행된 감사예배는 김영길 목사(5대 이사장, 감사한인교회 담임)의 환영사, 송정명 목사(월드미션대학교 총장, 4대 사장)의 기도, 복음방송 훈성중창단의 특별찬양, 김영길 목사의 설교, 축사, 감사패 증정 순으로 이어졌다.

말씀을 전한 김영길 목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시편107편 1~3절)라는 제목으로 "선하시고 인자

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25년을 맞았고, 새 사옥 새 시대를 허락하셨다"면서 "앞으로도 성령께서 이끄셔서 동서남북에서 영혼구원의 역사가 씨어질 바란다"고 전했다.

축사를 전한 민승기 목사(OC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는 "오직 말씀과 찬양으로 복음을 전한 미주복음방송이 수많은 눈물과 기도로 재도약을 마련했다"며 "더 큰 생명의 역사를 써가라"로 전했다.

한기형 목사(남가주증경회장단 회장)는 "교포사회에 희망을 주는 방송이 되어달라"고 축사했다.

이어 설립자 임종희 목사는 "미주에서 유일하게 24시간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 미주복음방송이다. 하나님께서 남가주에 복을 주셨다"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더 기도해주시고 후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덕순 사장은 "사옥을 이전하

기까지 지난 10개월은 피말리는 시간이었다. 방송을 전혀 몰랐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니 여기까지 오게하셨다"면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인도하심, 그리고 이사분들과 후원자들의 헌신과 기도, 임직원들의 헌신적인 희생으로 오늘에 이르렀다"며 인사말을 대신했다.

이어진 2부는 한혜진 전도사의 인도로 임종희 목사가 그간 미주복음방송을 통해 나눴던 칼럼을 책으로 출간한 출판기념식이 열렸다. 송병주 목사(선한청지기교회 담임, 이사)가 출판감사를 위한 기도, 고승희 목사(아름다운교회, 이사)의 축사, 저자 인사말, Vicki Lee 자매의 특별찬양, 임덕순 사장의 인사, 이종용 목사의 축도로 모든 행사를 마쳤다.

이인규 기자

김준형 기자



기독교복음선교연합총회 신구임원들. 사진 우측 두 번째가 김인철 직전 총회장, 세 번째가 강성수 신임 총회장이다. ©이현우

기독교복음선교연합총회(CGMA)가 제2회 정기총회를 8월 23일 오후 4시 LA에 있는 나눔과 섬김의교회에서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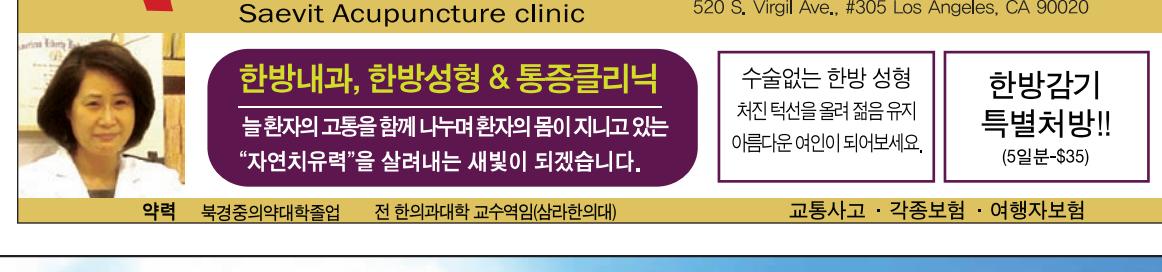
총회에서는 총회장에 강성수 목사(애플밸리복된교회 담임), 부총회장에 민준기 목사(가주장로교회 담임), 여성 부총회장에 주재임

목사(샬롬기도원), 총무에 엘리야 김 목사(나눔과 섬김의교회 공동담임), 서기애 백선용 목사(LA감사하는사람들교회 담임), 부서기애 안기정 목사(나눔과 섬김의교회 공동 담임), 회록서기애 김진규 목사(코로나장로교회 담임), 회록부서기애 이현숙 목사(크리스천비전신문사), 회계애 장혜숙 목사(엘림장로교회 담임), 부회계애 한수지 목사(갈보리채플 담임), 감사애 송인 목사(미주크리스천신대 교수), 윤에스더 목사(주님의 마음교회 담임) 등이 선출 및 임명됐다.

김준형 기자



찰리 정(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 “성령으로 구약을 알면 신약이 밝게 열려”

### 게이트웨이 신학교 CLD분교…가을학기 수강생 모집

지난 20여년 이상 성경을 가르쳐온 존신 교수는 게이트웨이 신학교(전 골든게이트 침례신학대학교)의 정형화된 리더십 개발 학교(Contextualized Leadership Development school, 이하 CLD)를 통해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

신 교수는 이 과정의 목적은 성경을 단지 학문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을 알고자 하는 열정을 학생들에게 불어넣어 주는데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곧 있을 이번 가을학기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고대한다고 했다.

신 교수는 "목회를 처음 시작한 분은 예수님이시다-예수님께서는 보통사람을 불러 훈련시킨 후 권능을 입게하여 크고 원대한 일을 감당케 한다"며 "큰 일을 한다 함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사역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열쇠는 자신은 완전하지 못하니 주님께서 행할 것임을 고백하는데 있다"고 했다.

신 교수는 고등학교 수준이면 해낼 수 있는 사역 훈련 프로그램인 CLD를 통해 가르치고자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교회나 커뮤니티 변화에 사역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이다.

신 교수는 또 "대부분의 학교나 신학교의 가르침은 인문학적인 부분에 집중돼 있다. 물론 이도 그리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CLD 과정은 성령사역에 중점을



존신 교수

두어 성경 지식을 사역에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것이 개인적인 사역이든, 목회를 하든, 아니면 선교나 카운슬링을 하든, 그 어떤 영역이나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에 따르면, 이번 가을학기에서는 구약만을 강의하는데 이 과정을 마치게 되면 신약을 보다 깊이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과정은 게이트웨이 신학교 CLD 한국어 과정이긴 하지만 수강생들의 필요에 따라 한국어 뿐만 아니라 영어로도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교재도 한국어와 영어 이중언어로 되어있다.

한편 이 CLD 과정을 마치면 CLD 수료증이나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추가 과정을 선택할 수 있으며 게이트웨이 신학교나 다른 신학교의 석사 과정을 지원할 경우 10학점이 인정된다.

이번 가을학기 수강료는 등록비 포함 285불이며 3학점을 이수하게 된다. 등록기간은 8월 31일까지이며 수강기간은 8월 29일~11월 21일까지이다. 자세한 문의는 이메일(jshinglobalms@hotmail.com)로 하면 된다.

이윤형 기자

##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강신권 목사에게 행한 폭언과 폭행에 대한 세계성경장로교회 당회원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밝힌다.

이번 일은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이후부터는 교협이라 칭한다) 수석 부회장인 김재율 목사가 회장인 강신권 목사에게 2016년 8월 11일(목) 오후 12시 40분경 한인타운 소재 로텍스 호텔 로비에서 폭언과 폭행을 가한 행위인데 이 행위는 강신권 목사가 지인 2명과 함께 호텔 내 여수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중 김재율 목사가 찾아와 강신권 목사를 로비로 불러내었고 로비에는 백지영목사와 정종윤목사가 있는 가운데 8.15 71주년 광복절 기념예배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목회자로써는 입에 담을 수 없는 험한 욕설과 심지어는 급소인 명치를 폭행한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으며 이 일로 강신권 목사는 911 출동하여 앤불런스로 올림피아 메디칼 센터 응급실(590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36)로 후송되었으며 지금까지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로 사모님과 모든 가족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번 폭행사태는 남가주 1500여 교회를 대표하는 남가주 교협의 차기 수장이 될 김재율 목사가 현 회장에게 폭행한 사건입니다. 미국사회에서 더욱이 목회자의 신분으로 폭언과 폭행 행위는 있을 수 없는 행위이며 분명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김재율 목사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 8월 4일(목) 교협사무실에서 열린 임원회의에서도 종무 박세현 목사에게 폭언으로 쌍스러운 욕설을 함과 동시에 가슴을 밀어붙이는 사건이 있었으며 교협과 교계의 명예와 위상을 심각하게 실추시킨 장본인입니다. 세계성경장로교회 교우들과 당회는 이번 행태를 동영상과 사진 또한 경찰 리포트를 근거로 명명백히 알게 되었기에 기자회견을 통하여 본 사건을 남가주 교계와 한인 커뮤니티에 분명하게 밝히고 다시는 위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또한 김재율 목사와 같이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자에게 교계를 맡길 수 없다고 판단되어 기자회견을 하는 바입니다.

물론 경찰과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지만 남가주 교협에서도 금번사태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시시비비를 가려 폭언과 폭행을 한 김재율 목사에게 그 행위에 합당한 징계와 재발방지, 그리고 분명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교협차원에서 요구하는 바입니다.

2016년 8월 23일(화) 세계성경장로교회 교우와 당회원 일동

\*본 광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6 시카고 할렐루야대성회가 18일~21일에 걸쳐 그레이스교회에서 열렸다.

## “하나님 나라와 관계회복”

### 시카고 할렐루야대성회…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

시카고의 유난히 뜨거운 여름을  
식혀줄 성령의 단비와 같은 집회  
가 열렸다. 시카고 지역 한인교회  
협의회 주관으로 할렐루야대성회  
가 18일~21일까지 열렸다.

이번 집회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와 관계 회복”으로, 첫날은 ‘기적의 치유’로, 둘째 날은 ‘신앙의 새 아침’으로, 셋째 날은 ‘가장 소중한 것’으로, 마지막 날은 ‘마지막 사명’에 관한 메시지가 각각 선포됐다.

강사는 시카고에서 오랜 기간  
목회했던 김의식 목사로 현재 그

는 한국 치유하는 교회를 섬기고  
있다.

시카고교협 회장 이철원 목사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회  
복이다. 각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이웃 간의 관계, 성도 간  
의 관계 그리고 나아가 교회 간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  
로 이번 주제를 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시카고 교계는 하나님 나  
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집  
회들을 준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오는 9월 9일과 10  
일 양일간 Justin Bailey 목사 초청  
청소년 부흥집회를 아가페장로교  
회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그리고 9월 10일과 11일에는 레  
익뷰언약교회에서 시카고워쉽&  
유데이 청년 연합집회를 열 예정  
이며 9월 30일~10월 1일에는 노스  
필드장로교회에서 맨하탄선교교  
회 담임으로 섬기고 있는 최재원  
목사를 초청해 Pop 시카고 청년  
집회를 각각 개최할 예정이다.

김경호 기자



한인교회 뉴욕지역 2세들의 연합수련회인 Jesus retreat 진행 모습.

주요 참석 대상은 6학년부터 12  
학년으로, 대학부 이상부터는 스  
텝으로 참여한다.

‘Jesus retreat’은 30년을 지나오  
며 일반 2세들뿐만 아니라 RCA 내  
차세대 2세 사역자들도 배출해 왔  
다. 뉴욕지역 디렉터를 맡고 있는  
폴 리 전도사는 86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 차례로 빠짐없이  
참석한 산증인이다.

폴 리 전도사뿐만 아니라 현재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2세 담당자  
들이 모두 ‘Jesus retreat’ 출신으로  
이 수련회를 통해 교단의 2세 사역  
을 돋는 일꾼들로 성장했다.

폴 리 전도사는 “초기 ‘Jesus re  
treat’은 만나서 예배 드리는 것이  
목표였고 그 자체가 은혜가 됐다”  
면서 “이 수련회를 통한 많은 은혜  
들이 현재의 저를 만들었다는 것  
에 감사하고 이것이 ‘Jesus retreat’

에 대한 큰 비전을 품고 있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Jesus retreat’은 이제 30년 차를  
맞아 다음 세대 지도자를 키우는  
장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현재 한인 2세 사역자들이 부족  
한 가운데 수련회를 통해 배출된  
신학생들과 교역자들을 지원할 시  
스템을 구축하고 이민교회의 2세  
사역자로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  
도록 돋고자 하는 것이 ‘Jesus re  
treat’의 목표다.

‘Jesus retreat’을 총괄하고 있는  
다니엘 김 목사는 “2세 신학생들  
을 위한 장학금 사역이 가장 우선  
적으로 펼치고자 하는 사역”이라  
면서 “수련회를 통해 2세 사역자  
들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지  
역교회들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  
요하다”고 밝혔다.

[뉴욕 기독일보]



## 오네시모의 독백

김영언 저

### 34. 에베소의 아르테미 신전

에베소의 자랑 아르테미(Artemis) 신전(저자주-세계7대불가  
사의중 하나이다). 아테네의 파르  
테논신전보다도 네배나 큰 아르테  
미신전을 한번이라도 직접 본 사람  
이라면 그 찬란한 영광을 쉽게 잊

지 못한다. 100개가 넘는 대리석 기  
둥이 햇빛을 받는 날에는 눈을 제  
대로 뜰 수 없으니. 아르테미는 그  
리스 신화의 올림푸스 12신 중의  
하나이며 제우스의 딸이다. 달의  
여신이라고도 불리우는 아르테미  
를 로마인들은 디아나(Diana)라고  
부르며 깊이 사랑한다.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Aristarchus)가 아르테미 신전에  
서 일어난 일을 회고하는 얘기는  
몇 번을 들어도 긴박하다. 그는 3  
차 선교여행 중의 바울을 수행하였  
다. 바울은 에베소의 두란노서원에  
서 2년 넘게 전도활동을 하였는데,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한다.

갈수록 회심자가 많아 결국 우상  
을 만드는 데메드리오(Demetrius)  
의 사업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데메드리오는 아르테미 신전과 여  
신상의 모형을 은으로 만들어 파는  
큰 손이었다. 그가 주도한 폭동은  
신전과 연극장에 이르렀고 바울대  
신집회간 아리스다고는 죽을 위험  
에 처했으나 에베소 서기장의 변론  
으로 극적으로 풀려났다는 이야기.  
의사 누가가 예수복음서에 이어 데  
오빌로에게 쓴 행전 19장에 이 일  
이 자세히 적혀 있다.

밀레도로 내려와 바울을 눈물로  
전송한 에베소의 장로들은 바울에  
이어 디모데에게 교회지도를 부탁  
하였고 디모데 감독하의 에베소교  
회는 유대 바깥에서 가장 큰 기독

교회가 되었다. 이 든든한 교회로  
또한 노사도 요한이 예수의 유언  
대로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온  
것이다. 그러니 에베소는 아시아  
의 기독교인들에게 꽤나 의미깊은  
도시이다.

그런데 가슴이 수십개 달린 아르  
테미여신 조각상이 여전히 내 마음  
을 흔들고 있다. 나는 여호와를 믿  
으니 세상 즐거움이 다 허망한 것  
인데도 나는 왜 이토록 세상을 계  
속 기웃거리는가. 에베소 장로들  
에게 사도 바울이 남긴 고별설교  
를 의사 누가가 적어 둔 대목은 내  
게 격려가 아니라 좌절을 남긴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  
려 함에는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  
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  
울은 텐트를 만들며 생계를 유지하  
고 매맞아가면서도 어떻게 그리 확  
신하였을까. 시골 변호사 사무실에  
서 허드렛일에 하루를 소진하는 나  
는 몹시 부끄럽고 허망하다.

### 35. 갈증

40대 어느 봄날. 목이 마르다. 아  
답자손의 숙명인가. 오늘도 진득한  
땀방울, 고단한 한숨. 앞으로 오래  
산다는데 하나도 즐겁지 않다. 신  
앞에 엎드려 목을 죽이거나 이내 찾  
아드는 갈증. 전재산 팔아산 밭에  
묻혀 있다는 보물은 착각일지 모른  
다는 외립된 의심. 신과 이웃을 사  
랑하기 서툰 나는 그래서 더욱 마  
음이 불편하다. 신앙을 가진줄 알  
았는데 미안하고 부끄럽다. 내속을  
알리 없는 봄볕은 나뭇가지 사이로  
초록이 되어 내게 살랑 손짓한다.  
너무 생각이 많은 것인가. <계속>

## 하루에 신약 27권 완독

노동절 휴일을 맞아 신약27권  
260장 전 절을 하루에 통독하는 집  
회가 열린다.

신약성경 전 권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통째로 우리 마음에 담겨  
질 때에 놀라운 감동과 새로운 운  
길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일시: 9월 5일 오전 8시부터

\*주최: 미주요한선교단

\*참가비: 30불(식사 및 간식)

\*장소: 가스월연합교회

\*주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문의: 909-268-4279

##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이사장 : 오병익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장 : 로스엔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 2016년 예수인교회 창립 1주년 감사예배

예수인교회 예수  
인교회 예수인교회

예수인교회 예수  
인교회 예수인교회

예수인교회 예수  
인교회 예수인교회

예수인교회 CHRISTIAN MISSIONAL CHURCH 10452 Louise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818) 854-9624 [wwwcmc-12.com](http://wwwcmc-12.com)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겨온지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예배를 드리기 원하오니, 오셔서 이 기쁨을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일시 2016년 9월 18일

시간 주일 오후 1:30



예수의 마음을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 그리스도의 심장

빌립보서 1:3~11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 1.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소유(所有)

다른 목회서신에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도된 나 바울은...”이라고 기록하여 자신에게 사도직분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밝히고 나서 문안과 권면으로 내용이 이어졌다. 그런데 유독 빌립보서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교회는 사도 바울에 대하여 한 번도 부정적이거나 불신하는 것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14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서둘러 루디아라는 여인의 만남을 통하여 그 가정이 복음화 되게 하시고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어 빌립보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온갖 진리의 말씀이 하늘소망으로 이끌어갔고, 성령의 다양한 은사와 영역을 체험하며 믿어지는 믿음의 뿌리를 진리 안에 내리게 했었습니다.

그 빌립보교회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사자로 100% 인정하고 그의 지도를 받으며 순종하고 따랐던 교회입니다.

본문 3절에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이라고 말한 것은 빌립보교회가 진리정통하고 성령충만하여 영적 성숙도가 날이 갈수록 예수님이 닮은 신앙인들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 빌립보교회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세웠지만 그 교회에서 열마동안 목회사역을 하다가 마계도나로 떠날 때 이 교회에서 계속 적극적으로 기도로 뒷받침했고, 마계도나에 가서 불모지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재정도 엄청나게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는 바울이 함께 있거나 떠나 있거나 항상 한 가족처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앞서고 소망이 넘쳤던 것이며 이것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했습니다. 이 복음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빌립보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100% 믿고 순종하고 실천하여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더욱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해가면서 무슨 일이든지 적극적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빌립보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령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감동과 지시와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열심으로 협력하

는 영적성숙과 지옥가고 있는 사람들을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영적인 성과가 바로 빌립보교회 다니는 신도들의 심령 속에서 그들을 깨우치시고 인도하시고 불들어 쓰심으로 나타나는 성과들이었습니다.

6절에서 바울은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날까지 너희를 통하여 이루어내실 줄을 확실히 믿는다고 말합니다.

7절과 같이 바울이 확신을 갖게 된 것은 빌립보교회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큼 소망적이었기 때문이며 그 교회가 하는 역할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과가 넘치는 교회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교회는 바울이 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금식기도까지 했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전달된 선교 현금으로 전 세계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중단이 없게 사역을 도와왔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께 내 증인이시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빌립보교회야말로 가르친 대로 믿고 자기가 보여준 모습 그대로 닮아서 예수님이 닮은 모습들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세계선교를 위하여 시간과 기도와 물질, 이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는 빌립보교회가 사도 바울은 너무나 그리웠던 것입니다. 보고 싶고 함께 있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에 손발이 잘 맞고 잘 통했기 때문입니다.

9절 이하 말씀은 빌립보교회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주는 그 사랑의 모든 정성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겠지만 그것보다 사도 바울이 기대하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이 닮아서 영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진실되고 허물없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그 믿음으로 계속 이어져 성숙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21살의 딸이 아버지를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 딸은 은혜가 충만해서 영적 소망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영적으로 구원 얻고 천국갈 수만 있다면 사업이 망해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마야과 술로 점점 망가져 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간과 심장이 피를 공급하지 못하게 되어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딸은 아버지의 인생은 아버지가

망가뜨려 놓았으나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분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시도록 다시 한번 살아보자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버지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딸은 포기하지 않고 일기를 써가면서 아버지를 회개시켜 구원얻게 하기 위해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사형선고를 받은 후 딸이 전하는 하나님께 의지해보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볼 생각으로 그 딸이 차를 몰고 아버지를 모시러 가던 중 그만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고 맙니다. 병원에서는 죽어가는 이 딸의 심장과 간을 이 아버지에게 이식시키기로 하고 그는 딸의 간과 심장을 이식받아 완전히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그의 어머니는 딸의 일기장을 남편에게 보여줍니다.

딸의 일기장에 적혀있는 신앙고백들을 아버지가 읽게 되고 병원으로 목사님을 모셔서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 육신은 딸의 희생 덕분이고 내 영혼은 예수님이 고난과 희생 덕분입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망해버린 사업도 인수합병으로 회생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후 그는 딸과 예수님께 영육간의 빛진

인생으로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전도회

를 결성하고 전도자들을 만들어 자신을 부

르는 곳은 어디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

원연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사명

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가로 구원을 얻었다면 다른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에 합심 전력해야 할 것입니다.

3.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하라

11절과 같이 하나님께 “참으로 잘했다.

네가 한 일은 다 좋은 일이고 선한 열매로 가득하니 너의 믿음이 참으로 보배롭구나” 하실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교회는 빌립보서 4:15~20에서 다음과 같은 칭찬을 듣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계도나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번

두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변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오스본이라는 부흥사는 “나는 순가락 같은 것으로 나누어 주는데, 하나님은 모래삽 같은 것으로 퍼부어주신다. 그것을 하나님과 뜻대로만 사용하고 활용하기가 너무 두렵고 힘이 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부어주시는 목적

에 합당하게만 사용하여야 선한 청지기의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신 것같이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본받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한국 신문 설교	
T 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독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T 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CTS TV	수요일 서부오후 4시30분/동부오후 7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동부 오후 9시	AM1310 LA 미주 기독교방송	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FMTV 91.5(SCA)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기독일보	5면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TUBE](http://YOU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킬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 성은복음선교회

**KONICA MINOLTA bizhub**

**Need color ?**

**최첨단 고해상도 칼라 디지털 복합기**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크**  
**Office &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Smart Touch Panel**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Used printers trade in & purchasing**

**bizhub C364e/C284e/C224e**

**C364e Color B&W 36/36 ppm**   **C284e Color B&W 28/28 ppm**   **C224e Color B&W 22/22 ppm**

**Dual Scan ADF 160 ppm Duplex**   **Dual Scan ADF 80 ppm Simplex**

**Mobile Support**   **USB Print**   **Emperon Drive!**

**Simitri** **bizhub MarketPlace**

미국 PCA 교단에 소속한 본 갈보리 장로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에서  
사역자를 청빙합니다.

중·고등부(Youth Group)  
영어 목회부(English Ministry)

● 자격조건

신학대학원 졸업자 또는 재학생  
체류에 이상 없으신 분  
영어에 능통하신 분 (한국어 가능하신 분 우대)  
사명과 열정을 갖고 “기도와 사랑”으로 양육하실 분

● 제출서류

이력서 1부(사진첨부)  
자기소개서(신양간증 포함) 1부

● 연락처

교육위원장(정석표 장로): T(443)243~0061  
이메일: 12dchung@comcast.net  
서류는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갈보리 장로교회

(담임목사 조 병래)  
www.calvaryus.org  
6800 Loch Raven Blvd., Towson, MD 21286

포틀랜드 영락교회는  
주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비전을 품은  
신실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자격 요건

- 3년 이상 목회 경험 소유
- 미국체류 및 취업에 결격 사유 없는 분

제출 서류

- 한글 이력서
- 본인 및 가족 소개(최근 가족 사진 첨부)
- 신양 간증
- 목회 비전 (8.5" x 11" 3장 이내)
- 최근 일년 이내 설교 2편 (MP3, MP4, CD, 또는 DVD)

보내실 곳

Email: seanshim@yahoo.com  
Youngnak Presbyterian Church of Portland  
Attn: 청빙 위원회  
17415 NW Walker Rd. Beaverton, OR 97004

## 포틀랜드 영락교회

LA 안인타운  
교회건물  
서브리스  
합니다

LA한인타운에 위치한 교회건물 서브리스 합니다.

위치 : 6가와 샷토 코너(새언약학교)

시설 : 본당 380+석, 파킹 46대, 교실 및 식당

연락처 : T(213)487-5437

담당자 : Mr. Joseph 구

이메일 : info@e-nca.org

• 이장렬 칼럼

목회자와 선교사를 양성해내는 신학교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 자연스레 ‘복음’을 더 온전하게, 동시에 더 쉽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가르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아울러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가장 압축적으로, 선명하게 잘 보여주는 성경 본문이 어느 구절일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된다.

그런 가운데 누가복음 19:1~10을 묵상하였고 이 구절이 가진 깊이와 매력에 흡뻑 빠지게 되었다. 물론 전에도 “삭개오”라는 인물을 소개하는 이 구절을 많이 읽었다. 이제 11살이 된 아들보다 더 어린 시절부터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를 귀가 닳도록 들었다.

그는 “기가 작은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 “뽕나무에 오른 삭개오” 등의 제목으로 어린이 설교에 자주 등장하는 인기 스타였다. 그렇기에 그에 대해선 제법 잘 안다고 지난 수십 년간 자부했었다.

하지만 한걸 한걸, 천천히 곱씹으며 읽어 내려간 삭개오 이야기는 내게 너무나 신선했다.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 이야기는 은혜로 가득 차 있다. 브래넌 매닝의 회고록 제목처럼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사실을 시인하게끔 만든다.

삭개오는 죄인과 세리의 친구로 알려진 예수님이 얼굴을 꼭 한번 보고 싶었다. 하지만 수많은 군중 그리고 자신의 작은 키 때문에 여의치 않았다. 아마 그가 그간 이웃에게 한 짓 때문에 군중들을 헤치고 나아갈 용기조차도 없지 않았을까? 적어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그럴

## 삭개오의 복음(1)



이 장 렬 교수

미드웨스턴침신대학원 신약학

삼천포 행 열차를 탄 것일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는 장면은 김춘수 시인의 <꽃>을 떠오르게 한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누가복음 본문으로 돌아온다.

예수님께서는 한 발 더 나아가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고 선언하신다. 삭개오와 친구가 되어주시겠다는 뜻이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세리들과 일체 상종하지 않았다. 세리들과 상종한다는 것은 그들의 악행을 인정하고 그들과 같은 부류의 죄인이 되어버린다는 중대한 종교·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렇기에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교제하는 것에 대해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 우리에게도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지 않던가? 바리새인들에게 사람 취급을 못 받던, 이웃들에게 유대인 취급 못 받던 삭개오를 친구 삼아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삭개오에게는 기쁨이 넘친다. 그때나 오늘이나 주님의 은혜는 기쁨을 가져다 준다.

삭개오를 찾아가셨던 은혜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다. 예수님이 고치지 못할 인생은 없다. 그리스도께서 재활 복구시키지 못할 만큼 심하게 망가진 인생이나 사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간 어떤 일을 겪었든,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 미래를 생각할 때 어떤 낙담과 좌절 가운데 힘들게 있든 예수님이의 현존은 우리를 일으키시고 날을 능력이 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다. 은혜로 찾아오신다.

“모든 것이 은혜다.”

## 캄보디아 선교여행



김 영 길 목사

감사한인교회

용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도신경의 첫 부분을 통역하려면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해야 한다. 보통 우리 말보다 서너 갑절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 실제로 사도신경을 외워보게 했는데 우리보다 네 배나 더 긴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성경도 우리 것보다 훨씬 더 진취적인 역사를 가진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도 해보았다.

우리 말과 영어는 번역해보면 그 길이가 비슷하다. 그런데 구약의 히브리어나 신약의 헬라어는 우리 말보다 더 간결하다. 동사 단어 하나에 전치사와 주어, 그리고 시제(時制) 등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혹시 언어표현이 간결한 민족일수록 더 진취적인 역사를 가진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도 해보았다.

무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 섬겨준 김해준 선교사와 사모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 가나안의 영광과 허무



민 종 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노아의 후손 70명 중에서 야벳의 족속은 14명, 함의 족속은 30명, 그리고 셈의 족속은 26명이다. 가장 풍성한 출산의 복을 받아 번성한 족족은 함의 후손이다. 그 뿐만이 아니라, 함의 후손들은 인류 초기에 지구상의 문명을 이루는데 있어서 최강자였다. “흑인은 저주받았다”는 말은 인류의 초기역사를 되돌아보면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다. 함의 후손 미스라임이 이룩한 놀라운 이집트 문명, 그리고 구스의 후손 니모릇이 이룬 바벨론 제국의 정치와 문화는 함의 후손에 의하여 이루어진 성취이다.

지중해의 교류와 상업으로 가장 강력한 경제적 성취를 이루었던 도시들은 북아프리카와 이집트, 지중해의 섬들과 가나안 지방의 해변도시이다. 그중에서 해상무역이나 내륙을 통한 교역의 중심에 있던 지방이 가나안이다. 팔레스타인 땅에 살던 고대 민족은 함의 후손 가나안의 후예들이다. 이들은 “비옥한 초승달 지역(the fertile crescent)”의 서남쪽 끝에서 살아가면서 거대한 두 고대 문명, 바벨론과 이집트를 연결하였다. 인종적으로도 가나안 족속은 30명의 함의 종족 중에서 11종족이다.

이루었고, 이들은 가나안의 해변과 내륙에서 고도의 문명에 살았다.

그러나 노아의 저주, 즉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창 9:25)는 말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가나안의 후손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철저히 윤리적으로 패역한 민족이 되었다.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인 타락과 폭력에 있어서 전례가 없는 백성이 되므로 유황불에 의하여 멸망당한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산인 애덴과 같은 비옥한 지역이었던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지역은 지금도 타다가 남은 유황 덩어리가 남아있는 황폐한 지역이다.

창세기 10장에 등장하는 가나안의 11종족 중에서 내륙에 살던 사람들은 9종족이다. 이들은 출애굽 시대에도 7족족으로 가나안의 원주민을 이루고 있다. 이들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이 유황불에 의하여 멸망당하였을 때 불구하고, 여전히 패역하고 타락한 문명을 가진 종족으로 살아간다. 우상숭배를 하면서, 인신제사를 드리고, 성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그들을 심판하셨다.

성경은 수천 년의 역사를 기술하면서, 현재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교훈과 경고를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인류를 사랑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인종을 초월하여 사랑을 베푸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훼손하는 악에 대하여 철저하게 대적하신다. 처음에는 경고하고 교훈하지만, 한사코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멸망에 이르도록 민족을 땅에서 뺏어낸다.

가나안 후손의 번성과 멸망은 하나님 없는 문명의 종국적인 허무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푸른투어 LA**  
cst# 212654040

문의전화 (213)739-2222 인터넷예약 [www.PRTTOUR.com](http://www.PRTTOUR.com)

뉴저지 본사  
(201)313-0899  
725 Grand Ave #305  
Ridgefield, NJ 07657

플러싱 지사  
(718)928-3333  
154-08 Northern Blvd #2B  
Flushing, NY 11354

로스엔젤레스 지사  
(213)739-2222  
3170 W. Olympic Blvd. #A  
Los Angeles, CA 90006

토론토 지사  
(647)686-6000  
5467 Yonge Street, Suite 2B  
Toronto, ON, M2N 6S1

서울 지사  
(02)739-0890  
Doosan We 58 #1238  
Jongno-gu, Seoul

여행설계사  
데비드 강의  
여행이야기  
AM 1650  
매주 화 1:30pm

노동자를  
전선

## “2016 최고의 가족여행” 요세미티 캠핑 2박3일



“요세미티레이크 RV 리조트에서 BBQ 파티(스테이크/ 삼겹살), 따뜻한 커피 그리고 별보기”  
백유진가이드 + 캠핑전문 쉐프와 함께하는 요세미티 캠핑

4인1실  
기준

- [특전1] 요세미티 최고의 글래시어 포인트
- [특전2] 요세미티 폭포 트래킹 산책 / 타이오가 패스
- [특전3] 전문 쉐프가 스테이크를 준비합니다
- [특전4] 캠핑트레일러/캐빈숙박(텐트가능)

**\$399**

3일 ▶출발: 9월3일 (토)



‘기차, 온천 그리고 와이너리  
낭만과 여유를 즐기세요’

## 샌디에고 기차여행

샌디에고(기차) / 샌디에고 올드타운/  
리호아(소핑)/샌디에고내항크루즈)/  
줄리안/엘림 핫 스프링(온천)/  
캘리포니아 랜치(와이너리)

▶출발: 9월3일 (토)

**3일 \$345**

## 라스베가스 세도나

바스토우 / 라스베가스 / 월리엄스  
슬라이드락 주립공원 /  
오크크릭 캐년 물놀이 // 세도나  
볼테스 // 몬테주마·웰 / 팔스프링스

▶출발: 9월3일 (토)

**\$299**

3일 **\$249**

‘하루 온종일 세도나에서  
제대로 느끼고 즐기세요’

## 라스베가스 세도나

바스토우 / 라스베가스 / 월리엄스  
슬라이드락 주립공원 /  
오크크릭 캐년 물놀이 // 세도나  
볼테스 // 몬테주마·웰 / 팔스프링스

▶출발: 9월3일 (토)

**\$299**

3일 **\$249**

## 레인보우브릿지 & 호스슈밴드 3일 \$345

캐나/파월호수(그로즈)/엔텔로프 캐년/호수수밴드 \$150상당 경비행기 포함

▶출발: 9월3일 (토)

## 빅서 / 피나클스 국립공원 3일 \$345

산타바비라/빅서/카멜씨티/레드우드(기차)/  
피나클스 국립공원파스로블레스(와이너리)

▶출발: 9월3일 (토)

## 요세미티 & 타이오가 패스 3일 \$345

워트포/비숍/타이오가패스/요세미티/프레즈노/모로베이(기차)

▶출발: 9월3일 (토)

## 옐로우스톤 4일 \$799

세계 간합전의 70%  
1만 피트가 넘는 산봉우리 45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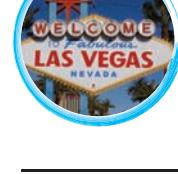
▶출발: 9월2일 (금)

세계최초/최고라는 명예로운 수식어를 항상 앞에 두는  
옐로우스톤 국립공원 제작 모시고 가겠습니다.

최고의 여행을 약속 드립니다. [010종합 가이드]

## 푸른투어만이 가능한 추가요금 없이 벨라지오 숙박

푸른투어  
only !!!



새로운 미서부 여행 TREND!  
역시 푸른투어가 시작합니다

[추천] 그랜드캐년 / 라스베가스 2박 3일 ▶매주화/토 **\$2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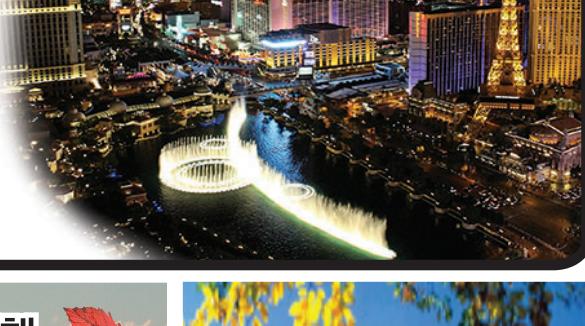
[실속] 4대캐년 3박 4일 ▶매주화 **\$599**

[BEST] 요세미티 & 샌프란시스코 3박 4일 ▶매주 토 **\$389**

[특별] 4대캐년

[실속] 미서부 5박 6일 ▶매주화/토 **\$599**

+요세미티/샌프란시스코 6박 7일 ▶매주화/토 **\$689**



오픈기념 이벤트!



★응모기간: 10월14일 까지 추첨일: 1차 8월 15일 2차 9월 15일 3차 10월 15일  
(한국 응모기간 8월 15일 1장, 9월 15일 1장 추첨하며  
그 외 모든상품 10월 15일에 추첨합니다)

★응모처 : 푸른투어 사무실 내방 사무실 내방 고객님께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추첨자: 대한항공  
LA지점장(우측)



\* 1차 당첨자  
최은순 님

## 미동부 캐나다 절정 단풍여행 비경의 화이트 마운틴과 심(深) 단풍의 퀘벡

① 한인여행사 최초 뉴햄프셔주의 화이트마운틴  
- <단풍 곤돌라> <카마스커스 단풍로드>

② 유네스코 문화유산 퀘벡과 북미의 파리 몬트리올

③ 미동부의 그랜드캐년 <오조블케이즘> 단풍 힐링하이킹

▶출발확정 10월5일 **\$949** (항공/숙박/입장료 등 완전포함)



Imagine your Korea & world  
단풍절정  
한국일주 10일

전주/해남/순창/한려수도/남해/외도/경주/영덕/설악 등 단풍일주

▶10/20 \$2,560 (항공포함)

## 서부 본부



세도나 투어  
알렉스 강 고문 동행

라스베가스/세도나/파닉스 4일 ▶8/29, 9/26  
\$399  
오크크릭캐년 예술인의 미술 스코프스데일  
이리조나 마리선 사우아이로 국립공원

제9차 미국남부 대륙횡단 14박 15일 ▶10/20부터  
비스토우, 라스베가스, 플렉스텔 세도나  
투산 퀸스버드, 페코스, 산아트토니오 시나판광  
NASA 미사시피 증기 유림선 뉴올리언스  
몽고메리 아틀란타 테네시 위스콘신 뉴욕

/항공포함/

서부 여행의 새로운 표준 3! 4! 5!

3 3대 캐년 4일 \$389  
3대 캐년 + 요세미티/샌프란시스코 7일 \$689  
▶매주 월 그랜드 캐년/브라이스 캐년/자이언 캐년

4대 캐년 (벨라지오 숙박) 4일 \$389  
4대 캐년 + 요세미티/샌프란시스코 7일 \$689  
▶4일 - 매주 화 / 7일 매주, 화 토 3대 캐년 + 앤텔롭 캐년

5 5대 캐년 5일 \$599  
5대 캐년 + 요세미티/샌프란시스코 8일 \$899  
▶매주 월 4대 캐년 + 모뉴먼트 베리

그랜드 캐년/라스 베가스 (벨라지오 숙박) 3일 \$299

요세미티/샌프란시스코 4일 \$389  
▶매주 월, 목, 금, 토 (토요일만 벨라지오)

미서부 실속 여행 6일 \$599  
▶매주 화, 토 (벨라지오 숙박)

## 유럽

여행설계사 대이드 강의 함께하는

## 김성과 낭만의 스페인일주 8일

HOT! 3대 아색특식 / 스페인 8대 내부관광지 포함

1. 스페인 3대 아색특식 빠에야, 몽골리안BBQ, 신도불이 하롱

2. 8대 내부관광지

1) 세계적인 미드드里的 프라도 미술관

2) 유럽 3대 성당 - 세비야 대성당 광장

3) 알罕布拉 궁전 4) 에스카타 대성당(내부)

5) 산도르페라스 6) 몰레도 대성당

7) 가우디 최후의 걸작 - 파밀리아 성기족 성당

8) 동화 속의 세계 - 가우디 구엘 공원

## 캐나다 본부

Wow~  
사토 프론트낙 호텔

북미의 파리 퀘벡을 기다  
퀘벡 단풍관광 5일 ▶매주금 \$1,499 \$1,099

▶캐나다에서 가장 렉서리하고 로맨틱한 퀘벡시의 랜드마크 시티 프론트낙호텔

▶전세계 사전적기로부터 가장 많이 친한 5성급 호텔, 유럽 궁중스타일의 인테리어

① 한인여행사 최초 뉴햄프셔주의 화이트마운틴  
- <단풍 곤돌라> <카마스커스 단풍로드>

② 유네스코 문화유산 퀘벡과 북미의 파리 몬트리올

③ 미동부의 그랜드캐년 <오조블케이즘> 단풍 힐링하이킹

▶출발확정 10월5일 **\$949** (항공/숙박/입장료 등 완전포함)

NoTip! No옵션! No쇼핑!

25인승 대형 디럭스리무진 최고급 호텔(특급), 지역별미

전국일주 7일 ▶토 \$2,199

서남부4일 ▶토 \$1,699

한국도 3일 ▶월금 \$1,699

남한한국 일주 ▶월금 \$1,499

평창올림픽 3일 ▶수 \$1,549

플러스백트 갑진 \$470 건강증진 \$350

신체증진 앙구, 삼정, 삼진, 삼진, 흥부-여의, 소변증진, 혈액증진증상, 갑상선, 상부나초증, 위내시경

골드백트 갑진 \$520 건강증진 \$400

플러스 페펙트 건강증진+수면대장내시경

## 동부 본부

나이아가라 유람선 포함

\$500 상당  
오/직/푸/른 (기간 8/31까지)

나이아가라 폭포부

옥스포트 특급숙박

실속 미동부 5일  
(뉴욕/워싱턴 D.C./토론토)



경기도대안학교박람회에서는 주제강연과 학교 소개 프레젠테이션 외에도 각 학교별 부스를 만들어 정보를 제공했다.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 “복음은 굿 뉴스다”

### 한국 목회자들 위한 '아시아 리더스 서밋 2016' 개최



빌리 헴프스 박사가 강의하고 있다.

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령의 일은 예수님만 높이고 전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라며 "성령의 역사는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가 나타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 목사는 "비판하는 것도 좋지만, 십자가 후에는 부활이 있어야 한다"며 "건설적 비판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들만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비판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복음은 '굿 뉴스(Good News)인데, 지금은 부정적 믿음이 팽배해 있다"며 "긍정적인 믿음의 자세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이영훈 목사는 "리더의 능력만큼 교회는 성장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변화 없이 교회의 성장은 없다"며 "아시아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아시아 복음화를 위해 우리가 먼저 변화돼야 한다는 인식을 함께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후에는 빌리 헴프스 박사(International Evangelism Association)가 제자를 세우는 자', 빈센트 레오 박사(美 남침례신학대학원)가 '21세기 선교전략', 진재혁 목사(분당지구총회)가 '리더십의 문화인류학 이해', 마원석 박사(美 Oral Roberts University 특임 교수)가 '오늘날 세계적 복음화의 맥락, 주어진 도전과 기회'를 각각 발표했다.

ALS는 2013년 홍콩, 2014년 서울, 2015년 말레이시아에 이어 이번에 네 번째 모임이며, 이튿날인 23일 ALS 회원들만을 위한 모임으로 마무리됐다.

이대웅 기자

## “아이들 가슴 뜨겁게 하는 행복한 학교돼야”

### 제2회 경기도대안학교박람회 개최…인성교육, 기독교대안교육이 답이다

공교육이 무너지고 학교폭력이 만연해지자 학부모들의 관심이 대안학교로 쏠리고 있다.

그런 관심의 반영일까. 지난 20일 낮 서울장신대에서 열린 '경기도 대안학교 박람회'에는 지난해 3배가 넘는 500여 명 이상의 사전 신청자들이 몰려 큰 성황을 이뤘다. 주제는 "인성교육, 기독교대안 교육이 답이다"였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정기원 교장(밀알두레학교)은 인성교육을 통해 신체적 성장이 있은 후,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지적이고도 사회적인 성장이 이뤄질 텐데, 오늘 날 공교육에서의 인성교육이 실패한 원인은 가운데 영적성장에 대한 것을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교장은 "위기학생이 발생하게 된 원인 가운데 가정과 학교가 가장 큰 요인이 된다"고 지적하고, 자녀양육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성경'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정 교장에 따르면, 오늘날 초중고 학생의 약 24%가 위기학생이라고 한다(교과부 '위기학생 실태 조사 및 지원 방안 연구' 보고서, 2010). 이들은 상급학교로 올라갈 수록 그 비율이 늘어 가는데, 정 교장은 "군인들도 20%가 관심병사라더라. 위기학생들이 그대로 관심병사가 된 것이다. 이들이 또 사회로 나간다면, 가정이나 사회에서 관심을 둬야 할 대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장은 이런 결과에 대한 원인을 두 가지로 봤다. 하나는 가정의 파괴이다. 이혼율 증가 등으로 위기 가정이 증가하고,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악화되며, 행복하지 않은 가정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하나는 '학교답지 않은 학교' 때문이다. 삶의 목표, 가치관,

비전 등을 가르치지 않고 임시위주의 줄 세우기 교육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 교장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 것을 강조하고, ▶가고 싶은 행복한 학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앙적이고 하나님의 교육 원리로 아이들을 길러내는 부모가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하고, 학교는 삶의 목표와 비전, 가치관을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심어 '가슴이 뜨거워' 지게 만드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경기도 대안학교 박람회'에는 그런 '행복한 학교' 23곳이 모여 신앙을 기반으로 한 자신들의 특별한 교육 컨텐츠, 커리큘럼 등을 소개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장신대와 한국기독교대안학교연맹, 기독교학교 교육연구소 등이 협력했다.

김규진 기자

## “지역 분쟁해결, 교회가 나선다”

### 아이팩조정중재센터…개신교 목회자를 위한 협상 및 조정과정

지역사회 내 분쟁해결을 위해 '개신교 목회자를 위한 협상 및 조정 과정(Global Negotiation and Mediation Program, GNMP)'이 신설된다.

GNMP 과정은 전문화, 다양화

된 고도의 '최적의 분쟁해결(ADR: Appropriate/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 분쟁해결 전문기관인 사단법인 '아이팩 조정중재센터'(이하 아이팩)에 의해 진행된다.

이번 과정은 오는 9월부터는 두 학기 동안 매주 월요일 3시간씩 개신교 목회자들에게 제공된다. 특별히 목회자 과정을 위해 협상, 조정 및 중재 관련 실무 콘텐츠가 강화되었으며, 노재봉·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 국내 최고 강사진의 강의가 개설된다.

본 과정을 이수하는 목회자들은 아이팩이 인증하는 조정·중재인(Neutral)의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며, 조정·중재인 글로벌 명단 등재를 통해 공식적으로 조정·중재 활동을 할 수 있다.

한편 2014년 2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정식으로 설립된 아이팩은 같은 해 9월 대한민국 특허청으로부터 조정·중재기관으로 정식 허가를 받았다.

송경호 기자

아이팩조정중재센터가 지역사회 내 분쟁해결을 도모하고자 '개신교 목회자를 위한 협상 및 조정과정(GNMP)'을 신설했다.



아이팩조정중재센터가 지역사회 내 분쟁해결을 도모하고자 '개신교 목회자를 위한 협상 및 조정과정(GNMP)'을 신설했다.

송경호 기자

아이팩조정중재센터가 지역사회 내 분쟁해결을 도모하고자 '개신교 목회자를 위한 협상 및 조정과정(GNMP)'을 신설했다.

송경호 기자

아이팩조정중재센터가 지역사회 내 분쟁해결을 도모하고자 '개신교 목회자를 위한 협상 및 조정과정(GNMP)'을 신설했다.

송경호 기자

아이팩조정중재센터가 지역사회 내 분쟁해결을 도모하고자 '개신교 목회자를 위한 협상 및 조정과정(GNMP)'을 신설했다.

송경호 기자

아이팩조정중재센터가 지역사회 내 분쟁해결을 도모하고자 '개신교 목회자를 위한 협상 및 조정과정(GNMP)'을 신설했다.

송경호 기자

아이팩조정중재센터가 지역사회 내 분쟁해결을 도모하고자 '개신교 목회자를 위한 협상 및 조정과정(GNMP)'을 신설했다.

송경호 기자

아이팩조정중재센터가 지역사회 내 분쟁해결을 도모하고자 '개신교 목회자를 위한 협상 및 조정과정(GNMP)'을 신설했다.

송경호 기자

아이팩조정중재센터가 지역사회 내 분쟁해결을 도모하고자 '개신교 목회자를 위한 협상 및 조정과정(GNMP)'을 신설했다.

송경호 기자

아이팩조정중재센터가 지역사회 내 분쟁해결을 도모하고자 '개신교 목회자를 위한 협상 및 조정과정(GNMP)'을 신설했다.

송경호 기자

아이팩조정중재센터가 지역사회 내 분쟁해결을 도모하고자 '개신교 목회자를 위한 협상 및 조정과정(GNMP)'을 신설했다.

송경호 기자

아이팩조정중재센터가 지역사회 내 분쟁해결을 도모하고자 '개신교 목회자를 위한 협상 및 조정과정(GNMP)'을 신설했다.

송경호 기자

아이팩조정중재센터가 지역사회 내 분쟁해결을 도모하고자 '개신교 목회자를 위한 협상 및 조정과정(GNMP)'을 신설했다.

송경호 기자

아이팩조정중재센터가 지역사회 내 분쟁해결을 도모하고자 '개신교 목회자를 위한 협상 및 조정과정(GNMP)'을 신설했다.

송경호 기자

아이팩조정중재센터가 지역사회 내 분쟁해결을 도모하고자 '개신교 목회자를 위한 협상 및 조정과정(GNMP)'을 신설했다.

송경호 기자

아이팩조정중재센터가 지역사회 내 분쟁해결을 도모하고자 '개신교 목회자를 위한 협상 및 조정과정(GNMP)'을 신설했다.

송경호 기자

아이팩조정중재센터가 지역사회 내 분쟁해결을 도모하고자 '개신교 목회자를 위한 협상 및 조정과정(GNMP)'을 신설했다.

송경호 기자

아이팩조정중재센터가 지역사회 내 분쟁해결을 도모하고자 '개신교 목회자를 위한 협상 및 조정과정(GNMP)'을 신설했다.

송경호 기자

아이팩조정중재센터가 지역사회 내 분쟁해결을 도모하고자 '개신교 목회자를 위한 협상 및 조정과정(GNMP)'을 신설했다.

송경호 기자

아이팩조정중재센터가 지역사회 내 분쟁해결을 도모하고자 '개신교 목회자를 위한 협상 및 조정과정(GNMP)'을 신설했다.

송경호 기자

아이팩조정중재센터가 지역사회 내 분쟁해결을 도모하고자 '개신교 목회자를 위한 협상 및 조정과정(GNMP)'을 신설했다.

송경호 기자

아이팩조정중재센터가 지역사회 내 분쟁해결을 도모하고자 '개신교 목회자를 위한 협상 및 조정과정(GNMP)'을 신설했다.

송경호 기자

아이팩조정중재센터가 지역사회 내 분쟁해결을 도모하고자 '개신교 목회자를 위한 협상 및 조정과정(GNMP)'을 신설했다.

송경호 기자

아이팩조정중재센터가 지역사회 내 분쟁해결을 도모하고자 '개신교 목회자를 위한 협상 및 조정과정(GNMP)'을 신설했다.

송경호 기자

아이팩조정중재센터가 지역사회 내 분쟁해결을 도모하고자 '개신교 목회자를 위한 협상 및 조정과정(GNMP)'을 신설했다.

송경호 기자

아이팩조정중재센터가 지역사회 내 분쟁해결을 도모하고자 '개신교 목회자를 위한 협상 및 조정과정(GNMP)'을 신설했다.

송경호 기자

아이팩조정중재센터가 지역사회 내 분쟁해결을 도모하고자 '개신교 목회자를 위한 협상 및 조정과정(GNMP)'을 신설했다.

송경호 기자

아이팩조정중재센터가 지역사회 내 분쟁해결을 도모하고자 '개신교 목회자를 위한 협상 및 조정과정(GNMP)'을 신설했다.

송경호 기자

아이팩조정중재센터가 지역사회 내 분쟁해결을 도모하고자 '개신교 목회자를 위한 협상 및 조정과정(GNMP)'을 신설했다.

송경호 기자

아이팩조정중재센터가 지역사회 내 분쟁해결을 도모하고자 '개신교 목회자를 위한 협상 및 조정과정(GNMP)'을 신설했다.

송경호 기자

아이팩조정중재센터가 지역사회 내 분쟁해결을 도모하고자 '개신교 목회자를 위한 협상 및 조정과정(GNMP)'을 신설했다.

송경호 기자

아이팩조정중재센터가 지역사회 내 분쟁해결을 도모하고자 '개신교 목회자를 위한 협상 및 조정과정(GNMP)'을 신설했다.

송경호 기자

아이팩조정중재센터가 지역사회 내 분쟁해결을 도모하고자 '개신교 목회자를 위한 협상 및 조정과정(GNMP)'을 신설했다.

송경호 기자

아이팩조정중재센터가 지역사회 내 분쟁해결을 도모하고자 '개신교 목회자를 위한 협상 및 조정과정(GNMP)'을 신설했다.

송경호 기자

아이팩조정중재센터가 지역사회 내 분쟁해결을 도모하고자 '개신교 목회자를 위한 협상 및 조정과정(GNMP)'을 신설했다.

송경호 기자

아이팩조정중재센터가 지역사회 내 분쟁해결을 도모하고자 '개신교 목회자를 위한 협상 및 조정과정(GNMP)'을 신설했다.

송경호 기자

아이팩조정중재센터가 지역사회 내 분쟁해결을 도모하고자 '개신교 목회자를 위한 협상 및 조정과정(GNMP)'을 신설했다.

송경호 기자

아이팩조정중재센터가 지역사회 내 분쟁해결을 도모하고자 '개신교 목회자를 위한 협상 및 조정과정(GNMP)'을 신설했다.

송경호 기자

아이팩조정중재센터가 지역사회 내 분쟁해결을 도모하고자 '개신교 목회자를 위한 협상 및 조정과정(GNMP)'을 신설했다.

송경호 기자

아이팩조정중재센터가 지역사회 내 분쟁해

## 미주 목회자 사역세미나



제2회 미주 목회자 사역 세미나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김기섭 목사(LA 사랑의 교회 담임).

### “부목사 담임목사처럼, 담임목사 부목사처럼”

#### 제2회미주 목회자 사역 세미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제로

[1면으로부터 계속] 1. 부목사 때에는 교회로부터 맡겨지는 사역을 가능하게 하는 경험해 보는 것이 좋다. 특히 자신이 못하는 일, 안 해 본 사역이 주어진다면 더 적극적으로 해 봄아 한다. 그래야 담임목사가 되었을 때 교회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 부목사 때의 다양한 경험은 자신의 깊이를 만들어 준다. 김 목사는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교육, 청년, 성인 교구, 새가족, 선교, 주차, 재정 등 많은 분야를 담당했고 선임 부목사를 거쳐 나중에는 임시담임까지 했다.

2. 부목사는 성도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김 목사는 “이민사회 성도들은 목사들보다 공부도 많이 하고 사회 경험도 많아 목사들보다 한 수 위에 있다. 그런데도 우리가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를 존중해 주고 그 리더십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 목사들만 모른다. 겸손히 성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가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10년간 함께 사역했던 부목사만 대략 100명이 넘는다. 그는 “솔로몬처럼 들으려고 하는 부목사가 있는 부서에는 사람들이 모이지만 성도들과 싸우려 하거나 자신의 이야기만 관찰하려는 목사로부터는 사람들이 빠져나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목사 때에는 성도들이 이런 저런 말을 많이 해 주지만, 담임이 되면 잘 안 한다. 그러니 오히려 부목사 때 밥을 사 주면서 자신에 대한 중고와 조언에 귀 기울이면 그만큼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김 목사는 이어 매일 주인의식을 갖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저울에 달아보고 계시다(단5:25~27)는 두려운 마음으로 사역하되, 마치 담임목사처럼 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 그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구절이 있다. 골리앗과의 싸움을 앞두고 다윗이 사울에게 ‘맹수로부터 아버지의 양을 지킨 일’을 말하는 장면(삼상 17:34~35)이다”라면서 “이렇게 다윗처럼 성도 한 명 한 명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양을 맡기신다”고 말했다.

3. 담임목사와 같은 각으로 목양하고 헌신하라. 담임목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부목사가 죽도록 헌신하면 성도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 ‘내가 담임이라면 어떻게 할까?’ 늘 질문하라. 그리고 현실적인 계산 같지만, 나중에 다른 교회 성도들이 담임을 청빙할 때, 우리 교회에서 누가 좋냐고 물어보면 그들은 당연히 당신을 추천할 것이다.

4. 다윗처럼 평소에 최선을 다하라. 하나님께서 매일 매일 우리를 인터뷰하신다고 생각하라. 오늘이 사역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 부목사 때 최선을 다하지 않던 사람이 담임이 되면 갑자기 최선을 다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그릇은 부목사 때 만들어 놓는 것이다. 부목사 때 열심히, 그것도 좀 명청하다 할 정도로 우직하게 사역한 사람들은 뭐가 잘 안될 것 같은데도 담임이 되면 목회를 잘한다. 그러나 재능도 있고 은사도 있지만, 부목사 때 잔머리 굴리던 사람은 담임이 되어서도 뭐가 잘 안 풀린다.

김 목사는 부목사들의 헌신을 강조했

지만, 그에 대한 분명한 보상도 강조했다.

5. 과도한 헌신과 과도한 희생에서 목사의 권위가 나온다. 성도들이 목사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은 우리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다. 목사의 권위는 헌신과 희생에서 나온다.

6. 하나님을 살아계신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만약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께서라면 할 만큼만 하면 된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신가?

부목사 사역에서 담임목사 및 동료와의 관계를 빼놓을 수 없다. 그는 원만한 관계를 당부하면서 한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료 목회자들과의 관계에 대해 조언했다.

7. 사역에서는 열심이 매우 중요하지만, 방향은 더 중요하다. 이 양들은 하나님께서 담임목사에게 맡기신 양이기 때문에 담임목사의 의중을 늘 물어보며 그에 발맞추어 가야 한다.

8. 성도들이 담임목사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갖도록 인도해야 한다. 그래야 담임목사의 설교에 성도들이 감동하고 변화 받는다. 담임목사가 잘못한 것이라면 그의 앞에서는 충언을 아끼지 말되, 성도들 앞에서는 담임목사를 높이고 존중하고 응호해 주어야 한다. 안 그러면 암살瘤처럼 된다.

9. 동료 부목사들은 경쟁자가 아니다. 부목사 시절은 목회를 배울 기회다. 나보다 나은 사역자가 있다면 무조건 배워라. 그들과 관계를 잘 맺어야 나중에 담임목사가 되어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목회에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다.

또 그는 부목사 때에 사역의 비전을 세우라고도 조언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을 분명히 알고 자신이 어떤 교회를 만들어가길 원하시는지 고민하며 영성을 가꾸어야 한다. 그래야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교회를 맡겨 주셨을 때 성실히 감당할 수 있다.

10. 목회자에겐 개인의 영성을 물론 사역의 영성이 필요하다. 사역의 영성, 즉 시스템의 영성을 갖고 있지 못하면 나중에 담임이 됐을 때 교회를 이끌 수 없다. 이 시스템은 곧 목회의 그릇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나를 부르신 소명, 내가 해야 할 역사적 사명, 내가 만 들어가게 될 교회에 대한 그림을 부목사 때 정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강의를 이렇게 정리했다.

“부목사 때에는 담임목사 같은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담임목사가 되면 오히려 부목사 같은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담임은 사실 예수님이고 우리는 언제나 부목사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번 사역 세미나에서는 김기섭 목사 외에도 이승종 목사(어깨동무 사역원)가 “이민목회의 출구”란 제목으로, ECA 교단의 스캇 레미네이저 박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사 안수”란 제목으로 강의했다. 또 채플린 사역, 노인 사역, 가정 사역, 교회 개척 사역, 다문화 사역, 캠퍼스 사역의 전문가들이 선택강의를 전했다.

김준형 기자

### “제16회 창작성가의 밤”

제16회 창작성가의 밤이 8월 27일(토) 오후 7시 나성서부교회(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에서 열린다.

이는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가 교회 음악의 발전을 위해 매년 기독 시인들의 시에 곡을 붙여 창작성가를 발표하는 뜻깊은 행사다.

올해도 12명의 작곡가가 13명의 시

인의 시에 곡을 붙여 15곡의 성가를 탄생시켰다. 그리고 창작성가의 밤 당일에 이 성가들은 LA 지역 유명 기독합창단들에 의해 처음 무대에 올려진다.

협회 측은 “올해에도 은혜로운 시와 아름다운 곡들이 완성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준비가 되었다”면서 “이번 행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귀한 찬양의 산 제사가 될 줄 믿는다”고 전했다.

김준형 기자

## 교계뉴스

2016년 8월 25일 목요일

9

## 교회 및 선교

### LA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점은이 예배 오후 2:22 모전 6:20(토)  
주일 바울학교 교육 12:00-17:00  
주중세미나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 LA 사랑의 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민2세를 배우며, 이민가정을 치료하여 선교 영광을 즐기는 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연연락처 T. (213)386-2233

연재선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20 수요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후 11:20 토요새벽기도회 오후 6:00  
학령 청년부 예배 오후 11:20

연재선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20 수요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후 11:20 토요연합새벽예배 오후 6:00  
학령 청년부 예배 오후 11:20

### LA 온하늘 교회

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 90019  
T. (818)983-9024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장태원 담임목사

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909-6473 / www.missionla.org

한천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Youth 예배 오후 1:00 토요연합새벽예배 오후 6:00

### LA 세계선교 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909-6473 / www.missionla.org

엘리야 김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월~토) 오전 6:00  
매일 성경통독(월~토) 오전 7:30

### 갈보리 믿음 교회

백신 세계 비전!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박영천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1508 S. Vermont Ave., LA, CA 90006  
T. (213) 272-6031

박현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 나성순복음 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새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 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정우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 나성서부 교회

평생하여 든든히 서기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 939-7323 / www.kwpla.org

박현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주일예배 오전 11:30 한여 청년예배 오후 2:00  
주일예배 오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학-토 오전 6:30

### 나성제일 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정우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유아동부 중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나리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주일 오후 1:30  
수요집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 나성제일 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조인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00 새벽예배 오전 10:00

### 산타모니카 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www.smkc.us

조인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00 새벽예배 오전 10:00

### 김문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아동부 오전 11:00 중등부 오전 6:00(토)  
중고등부 DM 오전 11:00

정우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유아동부 중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나리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주일 오후 1:30  
수요집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 나눔장로교회 앤카라 선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407 W. 6th St. #412, Los Angeles, CA 90006  
T. (310) 404-6219

김영구 담임목사  
1부예배 오후 1:30 성공공부 주일오후 12:00  
토오픈부인 모임 오전 11:00

### 김종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화~토) 오전 7:30

정우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새벽기도회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3부예배 오전 1:30 새벽예배(화~토) 오전 10:00

### 예향선교 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w@hotmail.com

김요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새벽예배(화~토)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수요예배(화~토) 오전 7:

## LA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후 5:30, (토)오후 6:00

고태형 담임목사

## 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org

고태형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성공부 오전 9:30 주일학교·주일오전 10:30  
영어회중예배 주일 오후 1:00

## 남가주새소망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T.(626)872-2405 교회, (503)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후 11:45  
4부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 인랜드교회

예수의 은혜한지자들이 사랑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622-2324, F.(909)622-1480 / inland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상전) 금요예배 오후 7:00  
오후 11시 (본성전)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6:00  
본성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상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최승록 담임목사

##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T.(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증보기도집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7:30

송재호 담임목사

##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909) 595-3110 hnsla@hnsla.org

## 사우스 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이창민 담임목사

## L.A.연합감리교회

100년 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310) 645-3698 / F.(310) 645-306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후 11:00

김준식 담임목사

## 남가주살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310)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00

서보천 담임목사

## 돌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951-3153 / doulou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EM예배 오후 11:00

박성규 담임목사

##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310) 325-4020 / F.(310) 325-4025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20  
주일 성공공부(새교우반) 새벽예배 오전 7:00(토)  
오후 1:00

박정환 담임목사

##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불집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323) 254-4012 / gkpcchurch.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중고부 예배 오후 11:00 Awana 유흥 8:00(금)  
유년부 예배 오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방수민 담임목사

## 베다니한인교회

문화는 교회 변화받는 교회 천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후 1:30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새벽 예배(화-금) 5:30(화-금)  
EM YOUTH 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화-금) 오후 7:45

박정환 담임목사

## 예수인교회

Christian Missional Church

10452 Louise Ave., Granada Hills, CA 91344  
T.(434) 229-6597 / cmc-12.com / yesuin12@gmail.com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집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김인식 담임목사

## 웨스트힐장로교회

West Hills Presbyterian Church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818) 884-2391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집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최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00  
이화철 담임목사

수요찬양봉집회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이화철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

중고등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후 6:00(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이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626) 810-3455 / F.(626) 964-5559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후 11:00  
창대교회 사령의 나눔터(매주 토) 오후 10:00-11:00  
이준준 담임목사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909) 388-2940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이승준 담임목사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후 6:00(토)

이승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후 11:00  
3부예배 오후 7:30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0:00  
3부예배 오후 11:45  
기독일보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기독일보



갈릴리 고고학회 연구팀이 예수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회당 잔해를 발견했다. ©페이스북

## “예수시대 추정 회당 잔해 발견”

남부 갈릴리 탈봇산 근처…예수생애 증명해줘

신약성서에 나타난 예수의 생애에 대한 묘사들을 정확하게 증명해 주는 이스라엘 회당의 잔해들이 발견됐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최근 보도했다.

갈릴리 고고학회 키너렛 연구소의 모티 아비암 수석 연구원은 “이번 조사 결과는 예수가 한 때 그 회당에서 설교한 것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와이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갈릴리 시골 지역에서 발견된 첫 번째 회당이다. 우리가 신약성서에 관해 알고 있는 역사적인 정보 즉, 예수가 갈릴리 촌에 두루다니며 설교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발견은 크리스천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그 장소가 유대인들과 크리스천들 모두에게 관광 명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여러 고고학자들로 구성된 발굴팀이 발견한 이 회당은 예수의 가르치는 사역에 적합한 장소로 사용되면서, 제사와 예배를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회당으로 보인다.

재커리아스 트러스트 사무소의 시몬 에드워드는 “이 발견은 해당 연구가 성서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완해 줄 수 있는지 보여주기 때문에 ‘흥미로운 소식’이었다”고 전했다.

에드워드는 크리스천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발견된, 주후 1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회당의 잔해는 성서가 좋은 이야기일 뿐 아니라 실제적인 이야기라는 사실을 가리킨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성경을 신뢰하도록 하는 한 가지 좋은 이유는 역사적인 기록들마다 제기될 수 있는 모든 시험을 성서가 통과하기 때문이다.

그 시험 중 하나가 (기록물의) 내용이 고고학적 증거와의 일치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에드워드는 “만일 성서가 단지 가공된 이야기라면, 우리는 고고학이 고대 세계에 관한 더 많은 것을 지속적으로 탐구하며, 실제로 어떤 점에서 성서가 틀렸는지 보여주기를 기대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발견한 것은 정확하게 그 반대이다”라고 말했다.

에드워드는 예일대 전 고고학 교수였던 밀러 부로우스가 한 말을 인용해 “고고학적 작업은 의심할 여지없이 성경 기록의 신뢰성에 대한 확신을 강화시켜 왔고, 수많은 고고학자들이 팔레스타인의 장소를 발굴하면서 성경에 대한 존경심이 (오히려) 더욱 증가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는 “역사적 증거의 빛에 비춰볼 때, 성경은 현실의 삶과 무관한 좋은 종교적인 이야기들의 모음집으로 가볍게 묵살될 수 있는 책이다. 이번 최근 발견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기독교는 인간 역사 안에 실제 사건들에 관심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에 확인된 새로운 발견물들은 성경의 독자들에게 예수의 이야기에 대한 더 큰 확신을 심어주고 크리스천들이 복음을 전할 때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강혜진 기자



이라크 국립박물관에 소재한 앗시리아 틸리프.

## “예수가 사용했던 아람어 되살린다”

앗시리아 크리스천들…아우리 교육센터에서 가르칠 예정

예수가 사용한 언어인 아람어의 고대 방언이 시리아에 건립될 예정인 새 교육센터에서 사상 최초로 되살아나게 됐다.

17일(현지시각) 영국 크리스천투데이는 “터키 국경에서 가까운 북동부 시리아의 카미실리시 아우리에 있는 교육센터에서 앗시리아의 신(新) 아람어인 시리아어를 가르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잔 말론 센터장은 아라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센터는 시리아 언어가 가진 여러가지 주제들을 가르칠 수 있는 시리아 언어의 전문성을 갖춘 교사들을 양성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또 “앗시리아 공동체가 자국의 언어교육을 시작하고 문화 센터를 연 것은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2011년 시리아 내전이 일어나기 전, 시리아에서 아람어 이외의 다른 언어를 가르치는 것은 불법이었다.

센터에서 시리아어를 배우고 있는 학생인 미르나 살리바는 “시리아어와 앗시리아어를 배움으로써 우리의 문

화와 역사를 더욱 잘 이해하게 되고, 이같은 지식을 다음 세대에 전승하고, 이들이 모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보장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고대 기독교의 한 분파인 동부 앗시리아 교회는 그 역사가 기원전 1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앗시리아 크리스천들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그 땅은 오늘날 이라크 북부와 시리아 북동부, 그리고 터키 남동부에 걸쳐 펼쳐 있는 땅이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수백 수천 명의 크리스천들이 시리아인들의 내전과 IS(이슬람국가) 세력의 증가로 이 지역을 탈출하고 있다.

카미실리 역시 최근 몇 달 간 수 많은 군사 공격을 받아왔다.

IS는 지난 12월 도시에서 발생해 12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던 3건의 테러 공격과, 지난 6월 시리아정교회 수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3명의 사상자를 냈던 교회 내 자살폭탄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 주장했었다.

강혜진 기자

화와 역사를 더욱 잘 이해하게 되고, 이같은 지식을 다음 세대에 전승하고, 이들이 모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보장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고대 기독교의 한 분파인 동부 앗시리아 교회는 그 역사가 기원전 1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앗시리아 크리스천들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그 땅은 오늘날 이라크 북부와 시리아 북동부, 그리고 터키 남동부에 걸쳐 펼쳐 있는 땅이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수백 수천 명의 크리스천들이 시리아인들의 내전과 IS(이슬람국가) 세력의 증가로 이 지역을 탈출하고 있다.

카미실리 역시 최근 몇 달 간 수 많은 군사 공격을 받아왔다.

IS는 지난 12월 도시에서 발생해 12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던 3건의 테러 공격과, 지난 6월 시리아정교회 수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3명의 사상자를 냈던 교회 내 자살폭탄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 주장했었다.

강혜진 기자

## O.C./얼바인 지역

김철민 장로  
www.GodFamily.com  
www.CMF.org

###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562) 483-0191 / (714) 493-0191

김일영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주일 9:00AM 새벽예배 월-금 5:30AM  
주일예배 2부 주일 11:00AM 주일 11:00AM  
주일예배 주일 11:00AM NEXTChurch.org  
대체예배 이어폰 주일 2:00PM NEXTChurch.org  
제자훈련 허리훈련 회-목 7:30PM

### NEXT 사랑의교회

NEXT Sa-Rang Church  
11 Musick Irvine, CA 92618 Tel (949)829-0010(office)  
www.nextsa-rang.com

김일영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10:00am 수요일예배기도회 9:00pm  
(2부) 1:30pm 금요온전절기아침 8:00pm  
사복예배 (월-금) 5:00am (화요일) 7:00am  
화요종중기도회 7:00pm 토요성경예배 7:00pm

###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 714-600-7700 www.ubmchurch.com

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찬양회 오후 9:30  
한국어찬양회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성장을 다리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김영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도서제작부 예배 오전 8:00 설기축 예배 :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부 예배 오전 11:00

### 남가주 벤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T.(714) 806-2562 kpcadavid@yahoo.com

민경업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영어부 예배 오전 11:00 대학부 예배 오후 1:30  
유초등부 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흘러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Puente)  
T.(562)691-0691 F.(562)691-0698 / nachimban.org

민경업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박재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오후 6:00(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새벽 5:30(월-금)

###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4552 Lincoln Ave.#207, Cypress, CA 90630  
T. (714) 952-0191 / www.socalgfc.com

하규암 담임목사

1부주일예배 오전 8:00 토요새벽 예배 오전 6:00 본당  
2부주일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공부 저녁 8:00 본당  
3부주일예배 오후 1:30

### 놀워연합감리교회

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562)802-4959 C.(714)308-7308 / usa8291@gmail.com

김일권 담임목사

주일예배 (EM) 주일 11: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안창훈 담임목사

교예부 예배 주일 9: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예부 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토 6:00am  
(유아유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 늘푸른선교교회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gmail.com

김일권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EM주일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 다감사교회

The Gamsa Community Church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714)988-3321, www.dagamsachurch.org

김일권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0:30 고현종 담임목사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2:20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 (점은예배)

###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org

고현종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45 금요Alpha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5:30(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모전 6:00(토)  
EM예배 오후 9:30

###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 9901 / visioncc.org

이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15 4부 청년예배 오후 1:30 김현요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3부예배 오전 11:30 힐어부 오후 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 베델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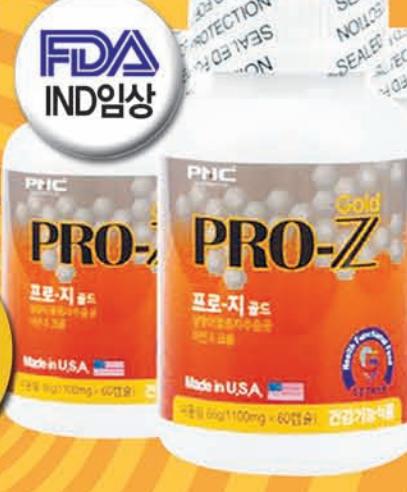
김현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P-kinder(Korean) 오후 11:00 Children(1-6) 오후 11:00  
금요일 기도회 오후 8:00 Youth(7-12) 오후 11:00 토요

100%  
천연성분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PRO-Z  
GOLDSpecial  
Price

✓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송해선생님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프로지골드



##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있는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이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약들은 천연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부종, 신장부종, 간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유수의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송문기 박사팀은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하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인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커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 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 아연이 당대사와 밀접하다면, 왜 아연으로 만든 당뇨약은 없나요?

아연은 특성상 섭취 시 인체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고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음식에도 굴이나 소고기 등에 아연이 존재하지만, 섭취 후 3~4시간이면 소변으로 배출되고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연이 췌장 세포 기능 복원이나, 근육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포내 아연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여야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계는 지금까지 아연 흡수율 제고 물질이나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송문기 박사의 신합성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을  
칼레이트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송문기 박사와 연구팀은 한국인 최초로 미 정부 지원으로 이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하고 당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PRO-Z

한국 50만병 판매 SALE

1병 \$69 + tax 3병 \$179 + tax 6병 \$342 + tax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

213.434.1170  
www.prozusa.com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 성지순례로 가는 성지순례 이야기(3)

## 광야의 향기 아라바(ARAVA)와 팀나 국립공원



팀나 국립공원에 있는 재현된 성막.



아라바 광야에 있는 팀나 국립공원 입구.



아라바 광야 길 씻임 나무.



팀나 국립공원의 기묘한 바위들.

### 성막이 재현되어 있는 팀나 국립공원 법궤를 만든 씻임 나무가 있는 아라바 광야길

거친들, 사막, 광야, 황무지, 황야가 주는 느낌은 슬슬하다 못해 삭막하기만 하다. 보통 순례객들이 새벽 1시쯤 일어나 시내산을 오른다. 밤새 걸어 오르는 길은 힘들기 만 하지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을 생각하며 힘든 줄 모르고 올라간다. 요즘은 낙타가 빈번하게 왕래하며 순례객들을 태우고 정상에 오르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해발 2,285m(7,496Ft)의 시내산은 젊은이들에게도 만만치 않은 산이다.

사실 시내산 등정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을 상기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에 대한 반성과 다짐이 목적이지만, 사실은 시내산 일출의 장엄함을 경험하기 위한 측면도 크다.

필자가 시내산에 처음 오른 것은 1993년 2월이다. 얼마나 애쓰며 올라갔는지 모른다. 해가 뜨기 전 잠깐 기도회를 같게 되었는데 일행 중 기도 순서자가 너무 은혜에 취해 길게 기도하는 바람에 일출의 장관을 놓친 경험이 있다.

지금은 일출 보지 않았다고 하는 아쉬움은 없다. 오히려 시내산 밑에 있는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다 금송아지를 앞세워 춤추고 난리낸 곳이 더 인상 깊게 남아 있다. 어쨌든 그 시내산 등정 때문에 사람들이 파김치가 되어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것은 사실이다. 거기마다 삼엄한 이스라엘 국경 통과가 몸과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대다수의 팀들이 예일랏에서 숙박하지 않고 일정 관계상 광야에 있는 아라드(Arad)나 사해(Dead sea)까지 올라온다. 그러니 숙소까지 도착하는 동안 줄곳 잠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광야의 향기를 맞아볼 여유가 없는 것이다. 하긴 이집트 쪽에서 시내산을 횡단하면서 신물나게 광야를 본 것도 있었을 것이니 광야에 관심이 가지 않는 것도 무리는 아니리라 본다. 그러나 땅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마나 역사하셨는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광야를 제대

광야를 고집했던 것은 광야를 통과해야 메시야 되신 구주를 영접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본다.

예일랏에서 사해까지 약 220km(136마일) 가까이 길게 누어있는 아라바(Arava) 광야는 고대로부터 대상들이 통과하던 길이기도 하다. 구약시대의 아라바는 갈릴리 호수 남단부터 홍해까지였지만 지금은 홍해에서 사해까지의 구간을 아라바 광야(Arava desert)라고 한다.

황폐한 곳이라는 의미에 걸맞게 예일랏에서 사해까지 2시간 30분 정도 가면서도 볼 것이 없다. 하지만 앞서 말한 광야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광야를 통과하는 것도 좋다. 광야의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열두 아들들의 광야 생활과 다윗과 그의 동료들 세례요한의 외침,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의 외침,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을 다시 생각해보자.

아라바 광야를 지날 때 구름기둥 불기둥만 생각하지 말자. 만나와 메추라기만 생각하지 말자. 신발이 헤어지지 않음만 생각하지 말자. 광야의 향기를 느낄 수 있고 광야의 깊이를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사 35:1~2). 또한 갈릴리의 푸름을 이해하며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땅의 참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이다.

2시간 30분의 짧은 광야 여행에서 배우는 결순과 인내, 순종과 믿음을 알게 된다면 성지순례는 이미 다한 것이나 다름없다. 차장 밖으로 스쳐지나는 광야의 모습들이 나와는 무관한 특이한 지형이라는 생각뿐이라면 이미 성지순례의 절반은 실패로 봐도 무리되지 않는다.

그만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조용히 들어보자.

예일랏에서 37km쯤 북상하면 왼쪽으로 검붉은 산들을 볼

수 있는데 이곳이 팀나 국립공원(Timna park)이다. 고대에서 지금 까지 구리 광산이 있었고 이곳에서 그 유명한 구리뱀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구리뱀 사건은 모두가 기억하는 광야 40년 역사에서 말씀의 불순종으로 일어난 혹독한 형벌이었고 이 사건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구속하실 것을 예표로 보여준 사건임을 안다.

팀나에는 고대의 성막을 재현한 것이 있는데 성막의 설명을 예수 믿은 유대인이 하는 아이러니도 있다.

팀나에 있는 성막 재현장을 둘러보니 성막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제한된 지면 사정상 성막에 대해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언급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다.

성막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오늘날 교회의 원형이 되는 성막에 대한 관심이 이스라엘 순례여행 중 더 많아지길 바라고 시간이 된다면 꼭 팀나에 들려 성막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가졌으면 한다.

그 외 텔 하이(Tel hi)라는 동물원이 있다. 광야의 동물들을 모아놓은 소규모 동물원으로 팀나를 지나서 오른쪽에 위치해 있다.

예일랏에서 사해까지 오는 동안 4개의 휴게소를 지나는데 그중에 예일랏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요바타(Yovata) 휴게소는 요바타 키부츠(Yotvata kibbutz)에서 운영하는 휴게소로서 꽤 괜찮은 시설로 먹거리와 쇼핑거리가 있다.

필자가 잘 아는 어느 후배 목사가 성지순례 와서 광야를 지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자신이 재학하던 신학교 구약학 교수가 한 번은 설교 중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만드실 때 백양목도 소나무도 전나무도 아닌 씻임 나무(아카시아 나무)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전나무, 소나무, 백양목도 못되고 가시나무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 하시

면 법궤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 후배는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 목회하기로 마음을 정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와 보니 전나무도 없고 소나무, 백양목도 없고 씻임 나무만 있어서 "속았구나" 하는 생각까지 하며 실망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셨단다. "너 있는 곳에서 잘 하라"고.

하나님은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시는 분이지만 있는 것을 사용하셔서 일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은혜 받았다고 한다. 성지순례를 오지 않았다면 평생 소나무, 전나무, 백양목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씻임 나무를 사용하여 법궤를 만드셨다고 믿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성지순례의 묘미는 이런 데 있지 않나 싶다. 성경에 나오는 사건, 지리, 인물, 풍물 그 어느 하나님도 놓치지 말고 깊이 관찰함이 필요하다. (계속)

◆서병길 목사는 전북 전주대학교 법학과 및 행정학 석사,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 이스라엘 예루살렘 히브리대학 이스라엘 역사 및 히브리 수학, 플러신교대학원 선교목회학 박사이다. GMS 이스라엘 선교사로 예루살렘에서 12년 사역했고, 임마누엘 대학교, 센트럴 신학대학교, 순복음 직영신학교에서 구약과 선교학을 강의하고 있다. 또한 다우니에 있는 골든스테이트 한의대학에서 한의학 석사 취득 후 CA 한의사 면허를 받은 후 우리한의원을 운영하며 새하늘선교교회와 이스라엘선교회를 동시에 섬기고 있다.



서병길 목사, 이스라엘선교회

100개 \$320 2017년 달력 주문 받습니다.

다양한 샘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세요)  
커스텀 달력도 제작해 드립니다.

심방 및 선물용 액자 (병원, 개업, 가정 심방용 말씀액자) \$30

말씀이 기록된 심방용, 선물용 캔버스 16x16:\$30  
커스텀제작도 가능합니다. (사이즈는 18x24, 20x30등 다양함)

\$15 \$160

각종사인 전문  
실내외 차량용사인

18x24 \$15  
교역자실  
본당 Main Service  
유역실  
부영실  
Fellowship  
Ranor School  
성가대  
시무실

### 저희 탑미디어는 목회와 선교사역을 위한 모든 미디어용품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각종 배너  
36x120 \$50  
한영배너 (스탠드 포함 \$65)

각종 임직패, 감사패 \$50

각종 전도용 품  
◆ 전도물티슈 ◆  
◆ 불펜 ◆  
◆ 각종 머그컵 / 보온 물병 ◆  
◆ 수건 ◆ 100개 \$400  
◆ 전도엽서 ◆  
◆ 책갈피 ◆

전도용 시디 / 앨범 제작  
디자인+시디봉투1000장  
+풀칼라인쇄시디1000장  
\$300!!!

장단 배경 디자인 및 제작  
VBS 및 각종 행사 선물용 티셔츠  
풀칼라티셔츠인쇄 \$6.5  
주보! 현금봉투 및 각종 인쇄물  
주보1000장+현금봉투1000장  
\$300!!! (디자인 무료!!!)  
교회로고이름+주소+전화번호  
차량용스티커 2개 \$50 !!!

## 온라인 쇼핑 비지니스

주부, 여자 유학생 환영  
주 8~10시간 사용하여 엑스트라 수입을 창출  
연락처 T(818)590-6078

Classified AD



## Family 자동차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 중고차 최고가 매입 \$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 주님미디어넷 전도용품 및 CD 할인행사

오픈 기념

CD Printing + Paper-Sleeve=\$300

한정판 스템프 포함 \$65 (봉투를 제외한 전 품목 Free Shipping!!!)

미디어선교에 앞장서는 팀미디어에서 귀 교회와 성도님들의 사역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성가시기 위해 기독교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주님미디어 넷경쟁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보다 편리한 구매와 저렴한 가격, 세련된 디자인으로

귀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성가시는 사역과 사업을 성기도록

하겠습니다.

junimmedia@gmail.com

Call : 323.265.0244

CD,DVD 제작전용 각종 연서·현수막·판형·시인(설날내외·차량) 제작, 판촉물인쇄 전문

junimmedia.com

제작비 및 판촉비 전액 지원, 판촉物料 제작 및 배송비 전액 지원하고 있으니

온라인 쇼핑몰인 주님미디어 넷경쟁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 해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업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파일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한의사랑  
한의사 Zo'e 조애  
Tel:(213)718-8275

이제마 사상 체질 맥 30년 전문  
체질맥, 장부맥, 병맥, 설진

심혈관 질환, 간질환, 중풍, 소화기문제, 내분비문제, 부인병, 고혈압, 당뇨,  
부종, 알러지, 신장병, 각종통증, 갱년기, 생리통, 생리불순 (아들 원하시는 분)

2120 W.8th St. #208, LA, CA 90057(8th&amp; Lake St.) (월수트 예약 필수)

## 교/회/렌/트

200석 예배실, gated 넓은 주차장, 식당  
부엌시설, 유치반, 청년반, 유아반

일요일 예배, 수요일 저녁 사용 가능 (Fwy 5 &amp; 91 근처)

Tel:(626)203-8008, (562)677-6005

BOOK BINDING  
DIGITAL PRINTING  
BANNER / BOARD  
FLYER / BROCHURES  
BUSINESS CARDS  
BOOKLETS

책자제본  
디지털  
인쇄전문

EXCEPRINTING 213.383.7733

2500 W. 8th St. #100, 101 Los Angeles, CA 90057

기독일보

기독일보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877)580-2424  
전화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 90248

## 제 2의 심장 “발” [카이로메아] CHIROMEA

발에 대한 무관심으로 깨어진 신체의 내부 장기 및 근골격계를 이제는 카이로메아로...

## 인체공학적설계

척추에 미치는 중력을 3방향으로 분산 : 디스크, 관절염 등 척추질환 예방  
지속적으로 용천혈을 자극함으로 기력 증진

## 카이로메아를 착용하셔야 할 분

조금만 걸어도 힘이 있거나 발바닥, 뒤큄치, 무릎 및 허리가 아프다.  
발바닥 또는 특정 발가락에 티눈, 군은살이 생기거나 신경이 압박을 받는다.  
성장기 어린이의 기형적 걸음걸이의 균형과 성장 촉진이 필요하다.

## 사용방법

남여 구분없이 표준화 되었습니다

대(L)9 1/2 이상, 중(M)9-6 1/2, 소(S)6 1/20 하



## 가루간장

SOY SAUCE POWDER

SOY SAUCE POWDER는  
유전인자를 변형하지 않은  
콩으로만 만듭니다.콩이 95% 들어 있어 영양분이 풍부  
No 방부제, No 화학조미료 안심!

## 골든씰

Golden Seal 천연항생제

골든씰은 약초  
로서 (KING OF KINGS)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약초들 중에서 가장  
놀라운 약효를 지녔다.  
항생제가 필요한 모든  
경우에 사용하며 감기몸살, 폐렴, 신증풀류,  
독감예방, 위장질환, 간염, 간경화, 중이염,  
방광염, 습진, 백선 등 각종 염증 피부질환에도  
좋음, 특히 마약 중독성에 최고의 해독제로도  
알려져 있다.

## CHARCOAL

숯가루와 질병 저용

알레르기, 아토피성피부염, 습진에 숯가루 적용  
차콜은 인체내의 독성 성분을 제거  
가정 상비 식품 필수!

국제 건강 가족 동호회 Tel(213)382-9714, 382-2827

Fax(213)382-2405 244 S. Oxford Ave., No. 2, LA, CA 90004

2nd St.

3rd St.

Oxford Ave.

##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 최신장비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5라인 8회 \$999

## •초스피드 다이어트

1주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습진 화농성 여드름

- ✓ 손가락
- ✓ 발가락
- ✓ 미디관절

\*지속한 코골이 증상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혈관 청소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 (자궁축, 하혈)
- TMJ 턱관절 장애

- 우울증
- 관절염, 다리 쥐 오름
- 원형탈모, 지속한 비듬
- 만성두통, 유통

\*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약 취급합니다.

## 치아미백

잇몸 시큰거림 풍치 예방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3달분 \$60

배 빼는 속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380-7800

각종 보험 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100%  
천연성분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가능이 강화된 PRO-Z GOLD

##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아연이 균형세포의 당대사와 체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 같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이 CHP를 침기한 신형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제(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에게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제(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 5,997,908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Special  
Price

1병 \$89 + tax

3병 \$249 + ta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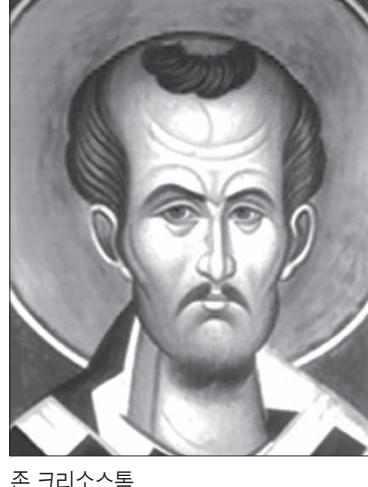
6병 \$474 + tax

가까운 약국이나 건강식품점에서 구입하세요!

방송인 송해선생님이  
자신 있게 추천하는 프로조글드

• 정연호 칼럼

## 유대인과 반(反)유대주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3)



존 크리소스톰.

## ◆ 존 크리소스톰

존 크리소스톰(Chrysostom, 349-407)은 가장 위대한 헬라 교부들 중의 한 사람으로서, “황금의 입”으로 불릴 만큼 탁월한 설교가 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대인에게 가장 심각한 적대감을 가졌던 교부였다. 그는 로마제국에서 가장 변성한 도시 중 하나였으며 예수님이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안디옥에서 목회했다(행 11:26). 당시는 여전히 기독교의 이상적인 권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였다. 기독교는 여전히 헬레니즘과 아리아니즘(Arianism), 그리고 유대교의 위협을 받고 있었다. 기독교의 제의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의 제의와 관습을 죄는 유혹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크리소스톰은 그의 교구 사람들이 샤밧을 지키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고, 또 랍비의 설교를 듣는다든지 랍비들에게 작품을 축복해 달라고 한다든지 병들었을 때 유대인 의사들에게 찾아가는 것을 아주 불쾌하게 생각했다.

## ◆ 유대인은 마귀와 춤추는 자

크리소스톰은 크리스천으로서 유대교의 관습을 죄는 자들을 “병든 자요 미친 자”라고 비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키는 자들과 교제하는 자들”이라는 딱지를 붙였다. 그는 크리스천들이 유대인과 가까이 지내거나 그

들에 대해 인도주의적인 감정을 갖지 못하게 했다. 유대인들은 인류의 정상적인 일원이 아니라 “마귀와 춤추는 자들”이며 “선천적으로 악한 자들”이라고 비난했다. 그들은 예수가 이 땅에 오기 전에도 또 온 이후에도 악했고, 그들의 악함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유대인들은 신(그리스도)을 죽인 자들로서, 이는 범죄 중의 범죄라고 했다. 그들은 탐욕주의자들이고 마음이 무딘 자들이며 세속적이고 육적인 자들로서 “이 세상의 일에 빠진 자들”이라고 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독교의 진리에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며, 약탈하는 자들, 탐욕하는 자들, 가난한 자들을 저버린 자들, 도둑들, 무역에서 속이는 자들이라고 비난했다. 돈을 위해서 어떤 것이라도 할 자들, 하나님을 죽인 자들이라고 했다.

## ◆ 하나님의 회당을 버리셨다

크리소스톰은 “하나님이 회당을 버리셨다”고 주장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회당은 사창가나 절벽보다도 더 악한 것이며, 도둑의 소굴보다 더 위험하고, “더러운 야수들의 모임”이라고 했다. 회당은 거룩한 장소이지만 하나님이 버리신 회당은 사악하다는 것이다. 그는 크리스천들이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장소를 지나쳐야 한다고 했다. “강도의 소굴이요 마귀의 집”이기 때문이다. 회당에 관한 그의 설교를 들어 보자: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 모인 회당에 십자가는 치워져 버렸고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고 계신다. 여기서 아버지는 무시를, 아들은 모욕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성령의 은혜가 거부되고 있다. 유대인들 자신이 마귀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서보다 더욱 큰 해가 나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이런 회당들을 부르기에는 더욱 적합한 이름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는가. 성전이 이미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이제 너희가 사창가나 죄의 요새, 마귀가 머무는 곳, 또 마귀의 성, 영혼의 파괴 장소라

크리소스톰은 누구보다도 후대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친 설교가였고, 따라서 히틀러는 그의 반유대적인 사상을 높게 평가하였다. 히틀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유대인은 일을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수단으로 생각한다” “유대인들은 주인이 되고자 하는 큰 목적 없이는, 결코 생산적인 창조자로서 일하지 않는다. 유대인은 비생산적으로 다른 사람의 일을 이용하고 즐기며 일한다.”

## ◆ 유대인들은 도살되기에 적합하게 자랐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 마땅히 받을 고통의 예(example)로, 유대인들을 살려 두고 그들이 영원히 방랑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크리소스톰은 어거스틴과는 달리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사용 가치도 없다고 했다. 쟁기를 끌기를 거부하는 동물을 죽여야 하듯이, 유대인들은 도살되기에 적합하게 자랐다고 하였다. 그는 누가복음 19장 11-12절에 나오는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는 말씀을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걸로 해석했다. 그는 이러한 성경 해석에 근거하여 유대인 학살을 정당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는 것은 비록 나쁜 것처럼 보일지라도 모든 것 중 최상”이라고 주장했다.

크리소스톰은 누구보다도 후대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친 설교가였고, 따라서 히틀러는 그의 반유대적인 사상을 높게 평가하였다. 히틀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유대인은 일을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수단으로 생각한다” “유대인들은 주인이 되고자 하는 큰 목적 없이는, 결코 생산적인 창조자로서 일하지 않는다. 유대인은 비생산적으로 다른 사람의 일을 이용하고 즐기며 일한다.”

## ◆ 크리소스톰: 비잔틴제국(동로마제국)과 정교회의 반유대주의에 대한 신학적 스승

리소스톰의 반유대적 입장은 비잔틴시대 황제들의 반유대적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그의 반유대적인 설교는 러시아어로 번역되었고, 그래서 1100년 러시아에서 첫 번째 유대인 대학살이 일어났을 때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 8세기부터 시작해서 기독교학교와 신학교에서 크리소스톰의 반유대 설교를 가르쳤다.

유대교의 종교적·경제적·법적, 그리고 정치적인 권리들은 결국

에 기독교 신학에 의존하게 되었다. 황제의 법은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결정하는 테오도시안법으로 구체화되었다. 황제들은 법을 제정했고, 교회는 황제들을 조종했다. 승리의 신학은 교회의 유대인 정책을 결정했다. 교회와 기독교 황제들은 유대교를 하나의 범죄집단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회당을 법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고, 중세에 종교재판을 강요했으며, 탈무드를 불태우도록 했고, 유대인에 대한 대량 학살을 가능케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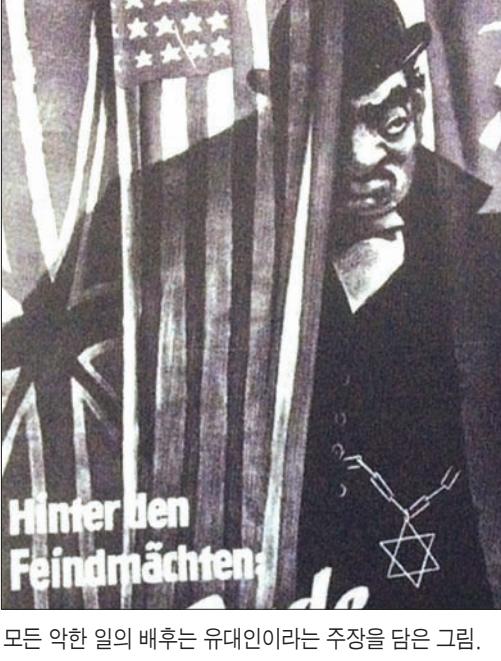
유사한 불의와 핍박이 비잔틴제국에서 일어났는데, 330년부터 콘스탄틴제국이 1453년 터키에서 의해 멸망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비잔틴제국에 살던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기독교 사상가들과 국가와 사회에 의해 핍박을 받고 죽어갔다. 600만이었던 1세기의 유대인 인구는 12세기에는 10만 명으로 떨어졌다. 동유럽의 신학자들은 서방의 신학자들에 의해 시작된 반유대신학을 반복했다. 그리고

다. 구약성경이라는 경전을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사이인 유대교와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갈등관계를 맺어 왔다. 이 갈등관계는 기독교가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음은 이미 전술한 바와 같다.

기독교의 정체성을 확립을 위해서 교부들에 의해 주장되었고 서구신학을 지배해 온 신학이 대체신학이었다.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에 의해 대체되었다는 것이다. 이 관점은 기독교의 뿌리로서의 유대교를 전적으로 부인하는 신학이었을 뿐 아니라, 유대교와 유대인을 악이요 마귀적인 존재로 보는 출발점이 된다.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많은 교부들은 모든 유대인은 근본적으로 혐오스러운 존재이며 그들의 악한 특징을 그들의 후손에게 전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유대인이 설사 세례를 받는다 하더라도 “유대인의 불신앙의 역한 냄새”를 완전히 씻어버릴 수 없다고 했다. 2세기의 기독교 변증가였던

저스틴 마티(Justin Martyr)는 유대인들을 이단과 연결시키면서, 하나님에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주셨던 이유는 태생적으로 죄가 많은 유대인의 악을 다스리기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어거스틴은 어떤 유대인도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와 그리스도를 죽인 혐리를 지울 수 없다고 보았다. 그는 “그들의 부모 안에 있는 유대인의 악이 그들을 죽음으로 이끌었다”고 했다. 어거스틴의 선생이었던 제롬은 모든



모든 악한 일의 배후는 유대인이라는 주장을 담은 그림.

동로마제국, 즉 비잔틴제국은 서로마제국에서 행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유대인들에게 행했다.

## ◆ 교부들: 반유대적 입장의 신학적 기초 정립

기독교의 첫 다섯 세기, 곧 교부 시대에 두 가지 중요한 기초가 놓인다. 한편으로는 기독교의 교리 등 자기 정체성이 확립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독교의 자기 정체성 확립을 위한 기초로서 반유대적 입장들이 표출되었다.

종종 갈등은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난다. 친한 벗이 되지 못하면 원수로 전락될 수 있는 관계가 ‘가까운 사이’일 것이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가장 가까운 사이임에도 역사적으로 친한 벗이 되지 못했

유대인은 가룟 유다이고 태생적으로 주님을 돈으로 팔아버린 악한 피조물이라고 주장했다. 존 크리소스톰은 유대인에게는 속죄를 위한 어떤 기회도 없다고 보았다. 주후 7세기의 “세빌레이의 이시도레(Isidore of Seville)는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라는 예레미야 13장 23절을 인용하면서 유대인의 악한 성격은 결코 변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8세기의 다마스쿠스의 요한은 하나님의 유대인에게 샤밧(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완전히 물질적인 것에만 치우치는 악한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나치의 반유대인종주의의 모든 초기 형태가 교부들에 의해 형성되었던 것이다. <계속>



반유대주의로 인한 방화로 불타는 회당 사진.

제24차  
9월 5일 하루 신약통독



이번 노동절(Labor day) 휴일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루에 신약 27권 완독

Labor day 휴일을 맞이하여 신약 27권 260장 전 절을 하루에 통독하는 집회를 아래와 같이 준비하였습니다.

신약성경 전 권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통째로 우리 마음에 담겨질 때에 놀라운 감동과 새로운 깨달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처럼 맞이하는 휴일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영과 육이 새롭게 활력을 얻는 복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 시

2016년 9월 5일(월) Labor day 오전 8:00

장 소

갓스월연합교회(이희철 목사)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el:(909)983-0994

참가비

30불 (식사 및 간식)



안성기 목사



이희철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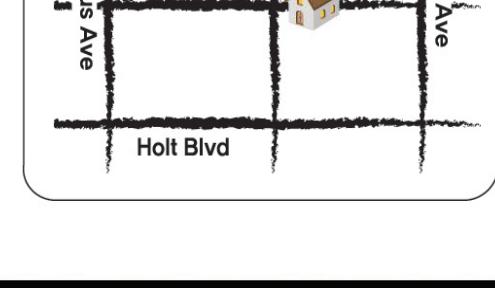


김동원 목사

교회 찾아오시는 길

Tel:(909)983-0994

904 E D St, Ontario, CA 91764



주최: 미주요한선교단 (대표 안성기 목사) 전화문의 환영 Tel:(909)268-4279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잠언 8: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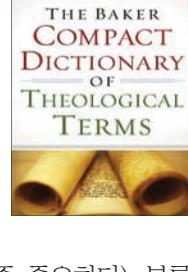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 신간 추천

### The Baker Compact Dictionary

Gregg R. Allison | Baker Boo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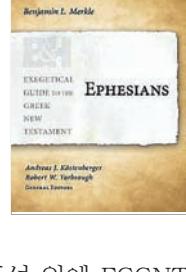
미국 남침례교 신학 대학원 역사신학 교수로 있는 그레그 앤리슨의 신학용어 사전. 이 사전의 주요 특징으로는, 상호 참조(이전 그림 특징은 아닐 것)이다, 어원(이게 아주 중요하다), 부록 형태로 제시되는 프랑스어, 독일어, 한국어 용어 번역(이것도 대단히 중요하다!)이 제공된다는 점이다. 제목 그대로 콤팩트한 사전이다. 신학생들과 출판계 편집자들이 아주 반길 만한 책이다.



### EGGNT(Ephesians)

Benjamin L. Merkle | B&H Publish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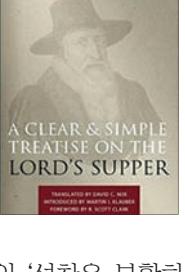
스코트 뉴발(J. Scott Duvall)은 이 책을 추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 내가 제일 선호하는 에베소서 주석 목록에 아놀드(Arnold), 회너(Hoener), 오브赖언(O'Brien)의 주석 외에 EGGNT 시리즈의 이 책을 추가할 것이다.” 뉴발의 이야기처럼, 복음주의 진영에서 아놀드, 회너, 오브赖언의 주석과 F. F. 브루스의 주석은 가장 선호되는 주석이며, 이 책에서도 빈번히 인용된다.



### A Clear and Simple Treatise....

Theodore Beza | Reformation Herit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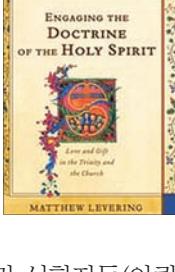
1559년 기록된 칼빈의 제자인 테어도어 베자의 성찬에 관한 책으로, 당대의 성찬에 대한 단순한 상징설·기념설에 반대하여, 교부들 특히 어거스틴을 통해 칼빈의 입장인 ‘성찬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참된 교제’임을 주장하는 책이다. 베자의 라틴어를 영어로 세심하게 번역한 본서는 요아킴 베스트팔과의 논쟁이라는 배경을 자세하게 서문에 설명하고 있다.



### Engaging the Doctrine of ....

Matthew Levering | Baker Academic

본서는 현대의 성령에 대한 관점들을 반박하며, 어거스틴 전통에서 고전적인 성령의 교리에 대해 역사적으로 추적한 책이다. 저자는 성경뿐 아니라 초대교회 교부들,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아퀴나스), 종교개혁자들, 근현대 조직신학(가톨릭 및 개신교 등) 및 성경신학자(제임스 던, N. T. 라이트 등)들을 조사한다. 본서는 초기경 이브 콩가르 이후 가장 최신의 포괄적인 성령론 연구서다.



## REVIEW

### 구입문의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LA : 기독교서적센타 T. (800)669-0451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 “죽음 통한 기독교 신앙의 진수를 맛보게 하는 책”

잘못된 내세관으로 무기력한 종교생활에 빠져 있는 현대인들을 향한 경종

“현재의 삶에 파묻혀 지내는 사람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있는 사람들, 죽음을 목전에 마주한 사람들, 죽음이 두려워 외면하고 싶은 사람들...”

모두 이 책의 메시지에 조용히 귀 기울일 때 내 생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리며 나그네 인생길로의 부르심을 깨달아 더욱 충만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한국 교회의 기도 문화에 대한 탁월한 진단과 깊은 성찰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사귐의 기도>

저자 김영봉이 이번에는 장례설교

집으로 우리를 찾아왔다.

저자 자신이 갑작스런 질병으로 인해 인생의 첫바퀴에서 멈추

어서 죽음의 문제와 씨름한 경험에 고스란히 녹아 있는 이 책에서는, 상실과 죽음에 관한 다소 무거울 법한 주제를 저자 특유의 쉽고도 따스한 문체로 하나씩 밝혀 준다.

자연사, 병사, 자살, 이른 죽음, 사고사 등 다양한 인생을 마주하며 고투하는 진솔한 목자의 심정이 담겨 있을 뿐 아니라 말씀을 바탕으로 실존적인 문제를 풀어내는 신약학자로서의 면모도 돋보인다.

저자는 본문 중 닫는 묵상을 통해 “만일 삶의 목적이 건강하게 오래 오래 사는 데 있다면, 죽음은 재앙이 될 것이다. 삶의 목적이 출세하고 성공하는 데 있다면, 죽음은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다  
김영봉  
IVP | 236쪽

완전한 실패가 될 것이다. 자식 잘 되는 것을 보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면, 죽음은 불행이 될 것이다. 죽음으로 인해 그 모든 것을 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되어 그분이 드러내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에 있다면, 죽음은 결코 재앙도, 실패도, 불행도 아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던진다. 어떤 사람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우리가

은 유보한 채 앞만 보고 달려가는 오늘날,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할지, 그러기 위해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죽음을 곁에 둔 이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에 관한 소중한 지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기독교 신앙의 진수를 맛보게 해주며 상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

편의 장례설교, 아울러 목회자들을 위한 유용한 장례설교 지침을 부록으로 수록하고 있다.

죽음을 등에 지고 향방 없이 달려가는 숨가쁜 일상에서 잠시 멈추어 저자의 글에 귀 기울여 보자. 너도나도 할 것 없이 현재의 행복은 유보한 채 앞만 보고 달려가는 오늘날,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할지, 그러기 위해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죽음을 곁에 둔 이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에 관한 소중한 지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기독교 신앙의 진수를 맛보게 해주며 상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

# 헤어 칼라 전문점

앞서가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



### マイスタイル 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리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 칼라  
\$30 up \$10 up

매직 스트레이트  
\$100 up

프로페셔널- 웨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칼리는 마이스타일 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웨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가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  
stylist my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Tel: 213-739-1022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 까지 9:00 AM ~ 8:00 PM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 한함.

\* 헤어 칼라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북스리뷰]

## “30년 바울 연구의 현 주소”

바울 신학을 위한 ‘기본 교과서’

데이비드 호렐은 영국 캠브리지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영국 엑시터(Exeter) 대학에서 신약학을 가르치고 있다.

〈바울 연구 입문〉은 호렐의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Paul 3th(2015)’를 번역한 것이다.

1판은 2000년, 2판 2006년, 그리고 3판은 2015년에 출판됐다. 꾸준하게 읽히고 있는 책으로, 3판을 CLC와 이승호 교수가 출판해 소개했다.

〈바울 연구 입문〉은 한 마디로 말하면 “바울 신학을 위한 기본 교과서”라고 정의하고 싶다. 최근 30여 년에 걸쳐 펼쳐진 바울 신학의 상황에 대해, 요약과 객관적 관점에서 제시하는 아주 좋은 교과서이다.

이 책은 교과서는 저자의 의도가 배제되어야 한다는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될 수 있는 대로 객관적이고 보편화된 자료로 구성한 문장을 제시하려 시도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접하는 독자는 매우 객관적인 자료를 습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책은 ‘교과서’이다.

기독교에서 왜 바울을 연구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울의 영향력, 즉 ‘거대한 산이 된 바울’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기독교에서 빼놓고 말할 수 없는 절대적 위치에 있고, 바울서신(진정성 있는 서신 7개)이라는 개인 저술도 있기 때문에 합리적 접근도 가능하다는 것은 연구자들이 갖는 확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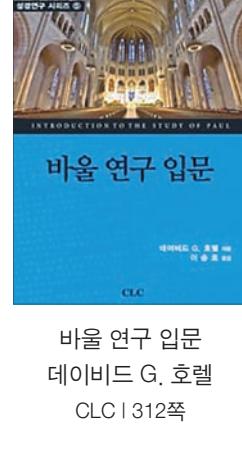
본 저술은 바울이 생애에 대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저자가 결정하지 않고 연구 상황을 제시하는 수준이다.

유력한 학자들의 연구물을 집대성하여 핵심을 제시하기 때문에, 매우 유익하다.

저술의 객관성은 추천사를 보면 쉽게 알 수 있고, 독서를 하면 객관성을 유지하려는 저자의 노력도 잘 보인다.

그리고 더 많은 연구로 가는 서지 목록을 제시하기 때문에 전문 연구로 연결된다.

서지 목록은 전문적인 연구자



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정보이다.

호렐은 바울에게 일어난 ‘다메섹 체험’에 대한 이해가 첨예하게 구분되는 것을 제시했다. 개종(conversion) 사건인가, 소명(calling) 사건인가? 이는 바울을 이해하는 첫째 단계이다.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횟수는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바울의 초기문서는 데살로니가전서인가, 갈라디아서인가? 이런 변수를 판단하면 바울을 이해하는 방향성이 두드러지게 변화한다.

호렐은 두 견해를 모두 제시하면서 독자가 정확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판단이나 연구 방향 결정은 독자가 스스로 해야 한다.

호렐은 바울의 사상의 핵심 주제에 대해 각 학자들의 연구 결과 물들을 제시한다. 본 저술의 특징이다. 책을 읽는 독자로서 어떤 면에서는 ‘시원한 답’을 얻고 싶은 마음에 상당히 답답한 면도 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고 제시하기 때문에, 정작 바울의 핵심 주제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이다.

모든 면에서 답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의견을 제시하면서 저자의 견해에 더 합리적인 것을 선택하게 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바울 연구 입문〉에서 주된 논점은 ‘새관점’이다.

유대인에 대한 관점은 흘로코스트 이후에 전환된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191쪽). 요세푸스에 의한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파, 열심당원 등의 유대교 사회에 대

한 이해에 대해 새관점은 유대교를 언약적-신율주의로 전환시켰다. 유대교 이해에 대변혁을 제시한 것이다.

호렐은 새관점과 김세윤의 격돌에 대해 꾸준히 제시한다. 김세윤 교수가 세계적으로 바울 신학계에서 한 축을 담당한 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새관점 학파로 인한 거대 변혁을 막을 수 없다. 학문은 옳고 그름보다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느냐가 시대를 주도한다.

지금 신약학계, 신학계는 새관점 학파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호렐도 그 거대 물결에 편승한 연구자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바울 신학에는 더 다양한 분야가 있다. 호렐은 사회비평학적 관점, 페미니스트적 관점 등 바울 신학 안에서 여러 관점으로 신학을 정립하려는 시도들도 제시한다. 그리고 후반부에서 상당한 지면을 할애해 ‘바울서신의 진정성’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바울서신 13권 중 진정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7권에서 빼진 6권, 즉 애베소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등이 왜 바울서신으로 인정되지 않는가에 대해 적은 것이다. 호렐은 중간자적으로 객관적인 서술을 한다고 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스스로도 바울서신의 진정성을 7권만 인정하는 듯 했다. 다만 6권의 위경(偽經)성에 대한 견해를 심하게 논박하지는 않고, 인정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바울 신학은 더 꾸준히 연구가 확장되고 의견이 개진될 것이라고 했다. 학문의 개방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새관점 학파의 이론이 현재 대세이지만, 다른 관점이 대두할 가능성도 열어 놓는다.

그리고 더 많은 관점에서 바울 신학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저술을 읽으며, 독자로서 한국 신약학계에 질문하고 싶은 것이 생겼다.

그것은 신약학 연구자들 자신이 생각하는 바울서신의 진정한 권수를 밝혀 준다면, 신학 이해에 좀 더 빠르게 적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바울서신’을 ‘7권으로 보는 연구자’들이 ‘바울서신에서 복음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할 때, ‘그 바울서신’은 ‘7권’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고경태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북스리뷰]

## “세계관에 대한 새롭고 창의적인 접근”

자신의 세계관을 판명하게 해주는 책



나도 모르는, 나의 세계관  
제임스 N. 앤더슨  
이서원 | 200쪽

과 유신론적 세계관으로 구분되는 데, 유신론에서는 세분하여 유사유신론과 유한한 유신론, 그리고 비기독교적 유신론으로 구분해 놓고 있다. 그리고 3부에서는 이원론과 관념론 그리고 기독교와 이신론과 물질주의와 다원주의와 범신론 등

우리의 안경이 되는 다양한 세계관이 설명되어져 있다.

만약 교회와 성도가 건강한 성경적 세계관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하여 세속주의와 물질주의 그리고 신비주의에 영향을 받는다.

저자는 그 세계관이 진리에 가장 가까운 것인지, 세상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을 정확하게 반영하는지, 세계를 바르게 보도록 인도하는지 확인하라고 도전한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의미하는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상당한 연구를 해야 이 관점을 소유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세계관은 치열한 학문적 습득과 과학적 실험을 통해 얻기보다, 우리의 삶과 문화와 생활양식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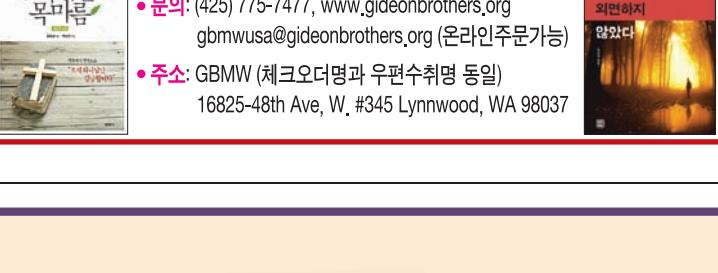
그리고 개인적인 렌즈와 함께 공통적인 렌즈로 세계를 조망하는 세계관을 발견하고 점검하게 해준다. 자신의 영혼과 인생이 어떤 문화와 배경을 통해 지금의 세계관이 형성되었는지 추적 또는 역추적하는 과정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리하여 다양한 세계관으로 내 영혼과 인생을 병들게 하는 세계관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자신의 바른 렌즈를 확보하게 도와준다.

아울러 세계관을 바꾼다는 것은 마치 대륙을 이동시키는 것과 같은데, 이 책을 통해 다양한 렌즈를 가진 사람을 이해하여 그들과 함께 살고 대화하며 그들에게 대안적이고 희망적인 세계관을 제시하기 원하는 자에게도 이 기발한 책을 소개하고 싶다.

저자 제임스 N. 앤더슨(Ph. D., 에든버러대학교)은 합동개혁장로교회(ARP) 소속 목사이며,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위치한 리폼드신학교에서 신학과 철학을 가르치고 있다. 철학적 신학, 종교적 인식론, 기독교 변증론이 그의 전문 분야다.

방영민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출두 권의 책-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드온동족선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크오더명과 우편수취명 등록)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신앙의 왜곡과 일탈, 안티 현상의 분출과 영혼의 사막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으로 기득한 가나안이라는 단어를  
오히려 교회를 안나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변형해 놓은 세대에 대한 통렬한 지적과 분석,  
그리고 진정한 가나안신자의 삶에 대한 내리티브!  
참된 가나안신자의 축복된 삶의 원리가 담긴 쉽고 흥미로운 비서!  
이 책을 펼치는 순간, 당신 삶에 축복의 시냇물이 흐른다.

240면 / 11,000원

# 안나가?

# 가나안!

— 소강석 지음 —

### 만발의 소명자 소강석 목사

1985년 월간 문예사조로 등단하여 한국문인 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새예원교회 담임목사로 사역하고 있다. 수많은 세미나와 부흥회 인도를 통해 다수 대회를 이끌어갈 차세대 대표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06 한국기독교출판 최우수상, 마틴 루터 경 국제평화상, 한국기독교문화대상, 천상병문학대상을 수상한 바 있고,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봉장, 한국교회 연맹과 일치상, 대한민국 보훈문화상, 자랑스러운 한국인상을 받았다. 일사각오의 목양정신과 이름다운 순정에서 나오는 그의 친절 활동은 많은 독자들에게 진진한 김장을 선사하고 있다.

함께 읽을만한 소강석 목사의 또 다른 저서



•한글인터넷주소 : 큐란 큐란출판사 홈페이지 www.quran.co.kr  
•서울 종로구 이화동 184-3 • TEL : 745-1007(대)



Dr. Scott Lemenager (left), Dr. Daniel Newman (center), and Rev. Kisup Kim (right) were among the speakers during the one-day seminar hosted by the Evangelical Church Alliance for Korean immigrant church pastors on August 20.

## 'Your Labor Is Not in Vain' Pastors Encouraged to Persevere

BY RACHAEL LEE

The Evangelical Church Alliance (ECA) hosted a seminar for Korean immigrant church pastors on August 20 at Light of Love Mission Church in Pasadena, with speakers from various Korean churches as well as some non-Korean speakers such as Dr. Scott Lemenager from the ECA and Dr. Daniel Newman from Azusa Pacific University (APU).

Speakers shared personal stories of the struggles they have faced while being in ministry, and encouraged the attendees to continue persevering.

For Lemenager, who serves as the special assistant to the president and as the clerk of the standards and credentials committee in the ECA, ministry has taken multiple shapes and forms throughout the years, and it didn't always look the way he expected. When he and his wife went to the Urbana Conference in 1979, for instance, they felt compelled to become missionaries to Native Americans, he shared during one of the main sessions of

the one-day seminar. But to this day, he and his wife still have not had the chance to directly minister to Native Americans.

Instead, Lemenager has ministered in different ways, as he has served as the father of not only 10 biological children but also 14 foster children and 10 foreign exchange students, and has served in four different denominations, with experience as a presbytery clerk in the Presbyterian Church of America (PCA).

"We realized calling is not restricted to a particular people or place. God will make a way for you to take care of all of your needs and also allow you to minister in whatever place you are at."

"There is no small ministry with the Lord," he added, encouraging pastors to remain faithful.

Daniel Newman, who has also had experience serving as a pastor of a Korean immigrant church, gave a brief word of encouragement and commended the pastors for persevering under the difficulties of serving at immigrant churches.

"Your labor is not in vain; the

Lord sees you," said Newman.

Rev. Kisup Kim, the senior pastor of L.A. Sarang Community Church, was also one of the main speakers in the morning session, during which he shared the lessons he learned during his many years as an associate pastor. Previous to his current position as a senior pastor, Kim had served 10 years as an associate pastor at a church in Australia, and 10 years as an associate pastor at Sarang Community Church in Anaheim. He encouraged pastors, no matter what position or title they may hold, to continually have an open mind and a teachable heart, and to always have ownership over the church and each specific department as if they were "on interview with God" each day.

Meanwhile, some 400 out of 2,000 credentialed pastors in the ECA are those of a minority ethnic group, most of whom are Korean, said Lemenager. The ECA is an alliance of ministers that ordains and credentials ministers but also accepts ministers of other denominations.

tions, which is one of the reasons the prayer meeting will be held in late October this year as opposed to in November.

Representatives of several Korean Christian organizations were present at a press conference regarding the prayer gathering that took place at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on August 18, including Rev. Paul Kihong Han, former president of the Korean Christian Council in America (KCCA); Rev. Ezra Kang, the president of 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All Nations (JAMA); and representatives from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Orange County, SOON Movement, Fire Crusade, Here I Am Youth Movement (HYM), and others. Leaders of other ethnic groups, including African American, Latino, Arab, and White leaders who participated in last year's event were also present.

Last year, organizers estimated that some 3,500 attended the 'Heal Our Land' prayer gathering. Rev. Ezra Kang said that organizers are hoping some 6,000 will attend this year, and particularly that second generation Korean American church members and leaders would participate.



Organizers of the 'Heal Our Land' prayer gathering hosted a press conference at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on August 18.

## 'Jesus Retreat' Celebrates 30 Years, With Hopes to Raise More Leaders

A retreat for Korean American youth in the Korean immigrant churches of the Reformed Church of America (RCA) in the New York region took place from August 14 to 17 in Pennsylvania.

Called the 'Jesus Retreat,' the event for young Korean Americans from 6th to 12th grades in the Korean immigrant church began in 1986, making this the 30th summer that the retreat will be taking place. Starting this year, all of the organizing staff of the retreat were either '1.5 generation' or second generation Korean

American leaders.

Over the past 30 years of its history, the Jesus Retreat has built up leaders who went on to become organizers and staff of the retreat.

Paul Lee, a pastor who currently serves as a staff of the retreat, has never missed a retreat since the first one in 1986. All of the other staff are also former attendees of the Jesus Retreat.

"Initially, the purpose of the Jesus Retreat was just to come together and worship, and that in itself was a blessing," said Lee.

"The many blessings that I've received through this retreat has made me who I am, which is why I'm so thankful for it and which is why I have a big vision for this retreat."

Organizers of the Jesus Retreat also expressed hopes that the retreat would be a channel through which many Korean American pastors and seminarians would be raised up. They shared that they hope to have scholarship programs for Korean American seminary students in the near future.



Attendees of the recent 'Jesus Retreat,' hosted by the Reformed Church of America, prayed for one another.

## When Looking for a New Church, Most Americans Are Attracted by Preaching

A vast majority (83 percent) of Americans are most influenced by the preaching when searching for a new church, according to a recent report by Pew Research Center, which focused on how often and why people choose to move to a new church.

About 50 percent of American adults said that they had searched for a new congregation at least at one point in their lives, most of whom cited moving to a new home as the reason for moving to a different church.

Some 79 percent of American adults looking for a church said that feeling welcomed by leaders was the next most important factor, other than preaching, in choosing a new congregation.

Style of services (74 percent) and location (70 percent) were other crucial elements in the choice of a new worship place.

Education for kids (56 percent), having friends or family in the congregation (48 percent), and availability of volunteering opportunity (42 percent) were other reasons considered important by those looking for a new congregation.

Only 19 percent said that they moved to a new church because of some theological reason or any dissatisfaction at the previous house of worship.

About 85 percent of the people looking for a new church attended the service first-hand before making a decision to join a church, while 70 percent had done so on recommendation of members of congregation or friends. Some 55 percent had spoken with clergy at the new church.

Only 37 percent had looked for the church information online before making the decision, while 19

percent had called the church.

About 28 percent of Americans said that finding a new church was not easy, and nearly 40 percent said they were not happy with at least one characteristic of the new church. Some 26 percent had theological differences with the church they tried to join.

Accessibility of churches (24 percent) was a factor which made it difficult for the new attendants to make it regularly to the church. Some 23 percent of the people were not satisfied with the fellowship at the new congregations they considered at some point in their lives.

The findings of this report were based on Pew's Religious Landscape Study in 2014, which interviewed over 35,000 adults over the phone. An additional 3,000 people were added to further explore these religious trends.

tionship with him," Laurie told the Los Angeles Times regarding when Harvest Crusades first began.

Laurie said that through the Harvest Crusades, he hopes to tell messages of "hope and turning to God and putting your faith in Him," and to remind attendees that God "gets you through the hardest times of life, [and] makes you stronger as a result," he told the Christian Post in 2014.

This year's SoCal Harvest will feature performances from musicians including Phil Wickham, for King & Country, Chris Tomlin, tobyMac, and others, and messages from Greg Laurie on questions such as "What is the meaning of life?" and "What happens when we die?"

More than 5.6 million have attended Harvest events since its beginnings in 1990, the organizers say, and over 470,000 have made professions of faith.

### Local Churches and Ministries

#### Christianity Daily

A ministry through journalism

For questions about advertising and donations

T.(213)739-0403 F.(213)402-5136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1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PASTOR JUSTIN KIM

Charis Mission Church

PASTOR SUNG CHA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www.charis.church

PASTOR HAROLD KIM

Sunday Services: 11 AM & 12:30 PM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PASTOR HAROLD KIM

## Federal Facilities Directed to Grant Access to Bathrooms According to Gender Identity

BY RACHAEL LEE

Several months after the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he Department of Justice issued a directive saying that public schools must allow students to use the bathroom according to their gender identity, another federal agency has followed suit, extending that directive to federal buildings.

The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issued the notice on Thursday, saying, "Federal agencies occupying space under the jurisdiction, custody, or control of GSA must allow individuals to use restroom facilities and related areas consistent with their gender identity."

The notice also prohibits the federal buildings from requiring transgender individuals to use single-user restrooms, or only allowing transgender individuals who have undergone medical procedures to use restrooms according to gender identity.

This new directive from the GSA will apply to some 9,200 federal facilities such as 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offices and courthouses in more than 2,000 cities across the country.

The initial directive issued by the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he Department of Justice in May said that bathroom access according to gender identity is required because the two agencies interpret the word "sex" in the non-discrimination clause of the education code to mean "gender identity."

Similarly, a GSA official told NBC News that the GSA's notice was issued

"to clarify that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gender identity is prohibited as sex discrimination."

More than 20 states have sued the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he Department of Justice since May, arguing that the agencies ignored the legislative process in issuing the directive and that the action was an overreach of power.



A photo of restroom signs at Charlotte Airport taken in 2009. A new federal directive requires federal facilities to grant access to restrooms according to gender identity. (Photo: Francesco Mucio/CC)

## Target Announces Plan to Spend \$20 Million to Add More Single-Use Restrooms

Target has said it plans to spend \$20 million to expand its bathroom facilities, months after it announced its new restroom policy accommodating transgender individuals.

In April the company said that it will allow people to use the bathroom according to their gender identity. This policy was objected by many, as an online petition started by the American Family Association (AFA) to boycott Target received over 1.4 million signatures.

Target will now add single-toilet restrooms which can be used by those people who want privacy or those with small children, a spokesman said on August 17.

The AFA met with Target top officials and recommended the company to provide unisex bathrooms for transgender people, in addition to male and female restrooms already being provided. But Target did not agree with the AFA's suggestion.

Cathy Smith, Chief Financial Officer at Target, told reporters at a press conference: "It's clear that some of our guests like and some dislike our inclusive bathroom policy."

"Some of our guests clearly are uncomfortable with our policy," she added.

The company said that its main aim is to create an environment at Target which is perceived as safe by its customers.

However, Target is not changing its earlier bathroom policy permitting the use of restrooms in accordance with gender identity.

Target has about 1,800 stores around the country, out of which some 1,500 already have single-stall restrooms. By the end of this year most will have such separate facilities, and the remaining Target locations will be re-equipped by early 2017.

In July, a man who identifies as a woman was arrested for taking pic-

tures of a woman changing in an adjacent stall in one of Idaho's Target malls. He was charged with felony and faces up to 5 years in prison.

Protesters in San Antonio, Texas, demonstrated outside Target last week, holding placards such as, "Men don't belong in the Ladies room," and "Don't Target our daughters," according to local news reports.

One protester Norma Reyna said: "I've got nieces and nephews, and, nieces especially, and I'd be appalled if a man was ever in a restroom with them ... I would be afraid to let them go in there by themselves, so I'm walking away from Target altogether."

Another protester Craig Cihak said that he is not against transgender people, but against the bathroom policy.

"I love transgenders; I love all people, but I think it's not fair to put them in this situation, and we want also the other reason is to keep our boys and girls safe," he said.

## Asia Bibi's Last Appeal Date Against Alleged Blasphemy Charges Set for October

Asia Bibi, a Pakistani Christian who faces a death sentence for alleged blasphemy charges, will appear in her last appeal to Pakistan's Supreme Court in October.

The hearing is the last legal option left for her to overturn the death penalty by hanging, according to the religious freedom organization 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 (ICC).

She was sentenced to death by a local court in 2010 under Pakistan's blasphemy laws.

In 2009, an argument ensued between Bibi and a group of Muslim women when she drank from the same water as them.

She was accused of blaspheming, which she denied. But she was detained and arrested after the incident.

Her high court appeals were delayed

several times, and finally in October, 2014, one of the two judges confirmed her death sentence. But subsequently, she was granted an opportunity for legal review.

Her petition was accepted by the Supreme Court to be reviewed in July 2015. Her lawyer had said he hoped that the court would acquit Bibi.

Bibi's lawyer, Saif-ul-Malook, told the ICC: "I will appear before the Supreme Court of Pakistan and argue her case while she will remain in prison."

"I hope the result will be an acquittal," Saif-ul-Malook added.

If Bibi's appeal is rejected by the Supreme Court, only a presidential pardon can stop the execution.

Human rights groups in Pakistan say that the country's blasphemy laws are used to persecute minorities.

According to BBC News, her five children and husband are living in hiding because of death threats from fundamentalists. Also, many have pledged to kill her if she is released from prison.

She told her family when they visited her on Christmas Day last year: "Jesus made this happy day for me and has accepted my prayers. I'm excited and full of joy in meeting today my family and celebrate Christmas with you."

"Today [Dec. 24] is also the birth of the Islamic prophet Muhammad. Peace be upon him, on this day. Honestly, I could never even think of disrespect," said Bibi, according to the Christian Post.

Bibi added: "But, although I have been in prison for seven years, I do not hate those who did me wrong."

## China's Zhejiang Province Bans Prayer and Preaching in Hospitals

Chinese authorities in the eastern province of Zhejiang have banned all religious and prayer-related activities in hospitals, according to a report from Radio Free Asia. The pastors will no longer be allowed to visit hospitals to pray for the sick and preach in hospitals.

A notice to stop conducting religious activities and praying was put up last week in Central Hospital at Wenzhou, the Radio Free Asia report says. The city of Wenzhou is also referred to as the "Jerusalem of China" because of its high concentration of churches. It has been the focal point of evangelism in China over the last few decades.

The hospital where the rule was implemented was established as a Protestant hospital.

"Religious activities in hospitals have never been encouraged ... but some people have been doing it on the quiet, which is understandable, seeing that we

are all here to support patients," a hospital employee told Radio Free Asia.

"Some people were really giving it their all, praying aloud and reading out the Bible," the employee said. "That's not allowed."

"The order is shown to patients when they are admitted to hospital telling them that no religious activities are permitted in the hospital," she continued. "If they do that here, then the nurses and doctors will have a word with them."

According to Bob Fu, the founder of China Aid, the Zhejiang rule will be extended to the northern part of Inner Mongolia and the province of Anhui.

"The Chinese government is taking its persecution of religious believers to another level," he told RFA.

Recently, the state government in Pingyang county near Wenzhou implemented a new law requiring churches

to hand over all their tithes and income to the authorities.

The measures were seen as an effort by the government to rein in Christianity.

In April,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held a conference on religious freedom to express his views on religions and how they must be practiced in China.

He said that the groups shall "dig deep into doctrines and canons that are in line with social harmony and progress, and favorable for the building of a healthy and civilized society, and interpret religious doctrines in a way that is conducive to modern China's progress and in line with our excellent traditional culture."

He added that the authorities must unite religious and non-religious people, and "guide those religious to love their country, protect the unification of their motherland and serve the overall interests of the Chinese nation."

Sunday Services: 9 AM & 11:15 AM  
Children's Ministry: 9 AM & 11:15 AM  
Youth Group Service: Sundays at 11:15 AM

PASTOR KEITH PARK



Church of Southland  
1380 S. Sanderson Ave, Anaheim, CA 92806  
T. (714) 209-7349 / churchofsouthland.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Brea Campus Service Times: 9:30 AM, 11:30 AM  
Irvine Campus Service Time: 10:30 AM  
PASTOR STEVE CHOI



Crossway Community Church  
Brea: 695 Madison Way, Brea, CA 92821  
Irvine: 100 Honors, Irvine, CA 92620  
T. (714) 529-5551 / crossway-church.com

Sunday Services: 9 AM & 10:45 AM  
Children's Ministry Services: 9 AM & 10:45 AM  
Youth Services: Sundays at 9 AM, Wednesdays at 6:30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0:45 AM  
PASTOR TIM PARK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to Young Adults): 7:30 PM  
PASTOR JAMES KWA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org

Sunday Services: 9 AM & 11 AM  
Bible Studies: Wednesdays at 7 PM  
Prayer Meetings: Tuesdays at 11 AM, Saturdays at 9 AM  
PASTOR SAM KOH



Hillside Church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909-9062 / www.hillside1a.org

Sunday Services: 9:45 AM  
PASTOR PHIL KIM



The Home Church  
19271 Colima Rd, Suite A/B,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384-1393 / thehomechurchrowland.com

Sunday Services: 11:30 AM  
PASTOR HENRY LEE



Crossroads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www.crlafgc.com

Sunday Services: 9 AM & 11 AM  
College Group Meetings:  
Sundays at 12:30 PM, Fridays at 8 PM  
PASTOR STEVE CHANG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oad, Brea, CA 92821  
T. (562) 694-2100 / www.livinghopecc.org

Sunday Services: 10: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0:30 AM, 12:15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2:15 PM  
PASTOR KIWON SUH



New Life Vision Church  
4077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323) 373-0110 / www.nlvc.org

Sunday Services:  
8:30 AM, 9:45 AM & 11:15 AM  
PASTOR PAUL KIM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1831 South El Camino Real Encinitas, CA 92024  
T. (760) 753-2535 / www.redeemersd.org

Sunday Services: 1 PM  
Youth Group Services:  
Sundays at 11 PM, Thursdays at 7 PM  
PASTOR DANIEL HAN



Restore Fellowship  
2525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 www.ladongsan.com

Broadway Campus Sunday Services:  
9:45 AM, 11:15 AM, 12:45 PM  
Jefferson Campus Sunday Services:  
9:30 AM, 11:30 AM  
PASTOR MICHAEL LEE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Broadway: 1721 North Broadway, LA, CA 90031  
Jefferson: 150 W. Jefferson Blvd., LA, CA 90007  
T. (323) 227-1414 / www.ynccla.org

차종에 따라  
72개월까지  
0%이자 가능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SUMMER 특별 SALE**

"THE EXCITING APPEAL OF ELANTRA SPORT"

**NEW**  
**2017 HYUNDAI**  
**ELANTRA SE**

Lease It For **\$58** +Tax

All In Stock With  
MSRP **\$19,260**

36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Signing, \$500 Lease Cash, \$500 Valued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NEW**  
**2016 HYUNDAI SONATA**  
**Limited Technology**  
**Package**

Lease It For **\$88** +Tax

All In Stock With  
MSRP **\$33,345**

"DESIGN RENEWED BY INNOVATION"



**NEW**  
**2016 HYUNDAI**  
**TUCSON SE FWD**

Lease It For **\$9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4,115**

24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Lease Signing, \$1,500 Lease Cash, \$500 Valued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NEW**  
**2017 HYUNDAI**  
**SANTA FE SPORTS 2.4 FWD**

Lease It For **\$11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6,470**

24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Lease Signing, \$1,250 Lease Cash, \$750, Competitive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찰리 정

626.513.4981



스티브 장

626.723.3336



저스틴 길

626.723.3584

**HYUNDAI**

**1-888-644-7114**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http://www.phhyundai.com)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See dealer for LIMITED WARRANTY details.

HYUNDAI Assurance

